

# 金正日著作 解題

1993. 12.

金 炳 魯 (資料調査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資料調查室

# 要 約

## 第 I 章 序 論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黨·政분야에서 권력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온 김정일은 1990년대 軍의 최고통수권자가 됨으로써 이른바 黨·政·軍을 모두 장악한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되고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기까지는 김정일저작을 포함한 문헌 출판·보급 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金正日著作의 출판 및 소급출판 사업은 김정일이 사상·이론가적 자질이 충분함을 부각시켜줄 뿐 아니라, 김정일의 對住民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 金正日 後繼體制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김정일저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一別, 저작에 나타난 사상체계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친 基本政策을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북한사회의 政策方向과 指導方針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對策樹立에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第 II 章 金正日著作 出版事業의 推進過程과 政治的 意味

김정일저작은 후계체제 구축 및 수령승계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산물로서 3段階에 걸쳐 저작 출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1단계는 김정일저작이 첫 출판된 1982년부터

1984년까지로 주체사상, 당건설, 경제, 교육, 군사 등 북한사회 각 분야에 政策指針書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문건들을 발표·출판하였다. 이는 김일성저작에 의존해오던 부문별 주요 정강 정책을 김정일저작으로 대체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政治的 基盤을 確保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제2단계는 1985~87년 사이에 진행된 사업으로 이 단계에서는 미발표된 과거의 저작을 발굴하여 遡及出版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김정일의 과거활동에 대한 재구성 및 後繼者로서의 이미지 創出을 시도하였다. 소급출판은 經濟관련 문건과 文藝 관련 문건이 그 주류를 이루며, 文藝관련 문건의 소급출판은 김정일의 초기 문예관련 저작을 집중 출판함으로써 문학예술분야의 천재성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사상·이론가적 자질을 선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經濟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소급출판한 이유는 1984년부터 김정일정권이 표방한 경공업혁명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김정일이 경제정책 이론가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2단계는 특히 강성산 등 개혁파 세력이 김정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後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소급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제3단계는 1988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진행중인 단계로 1986년 5월, 후계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직접적인 발언이 있는

다음부터 가속화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김정일의 首領承繼를 염두에 두고 김일성으로부터의 수령 이미지 전이, 정권의 정통성 창출 및 김정일 이상화를 목표로 저작출판을 體系化하고 있다.

### 第 Ⅲ 章 金正日著作의 時期別 內容分析

김정일저작의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사회문화분야가 전체의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치분야 26%, 경제분야 14%, 군사분야 3%, 통일분야 1% 순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 조직과 유일사상체계 및 문예분야의 문헌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권력기반과 권력장악이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과 일치한다. 한편, 외교 및 대남통일과 관련된 문건이 적는데 이는 1974년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대외·대남분야는 김일성이, 대내업무는 김정일이 관장하도록 한 役割分擔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1. 文藝理論 展開期 (1964~73)

이 시기는 1964년 9월 대학을 졸업한 金正日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黨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선전담당 비서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김정일은 다름아닌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김일성의 절대화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이론화·정당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김일성 唯一思想體系의 철저한 확립과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을 강력히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文藝分野(76%)의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여 이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력을 확대하였다.

## 2. 黨指導理論 展開期 (1974~80)

1970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당지도부에 김정일을 지지하는 혁명 2세대가 대거 등장함으로써 金正日을 후계자로 응립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문헌구성의 특징을 보면, 黨조직 및 운영에 관한 문건은 10%에서 55%로 대폭 증가하였고, 經濟관련 문건도 6%에서 18%로 늘어난 반면, 文藝관련 문건은 76%에서 26%로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權力基盤 구축이 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 시기에 당조직 개편 및 당지도체계 문제와 관련된 저작을 주로 발표했기 때문이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속도전, 3대혁명이론 등 정책제시를 통하여 권력확대 및 이미지 구축을 시도한 결과로 보인다.

## 3. 國家指導理論 展開期 (1981~90)

1980년대는 김정일이 줄곧 북한의 중요한 대내외 정책을 관

장하고 권력의 전면에 나서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김정일은 主體思想의 이론적 체계화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中·蘇의 변화에 대해서 輕工業政策과 통제속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제시하고 社會組織活動 強化에 대한 문건발표를 통해 지도자적 위상을 점차 정립해 나갔다. 이 시기의 발표문건의 구성을 보더라도 정치(30%), 경제(24%), 사회문화(42%), 군사(4%)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4. 主體 社會主義 體制理論 展開期 (1991~93)

사회주의 改革·開放물결이 동구 사회주의권에 파급된 현상을 주시하면서 김정일이 社會主義 體制의 方向性을 재정립하기 위한 저작활동을 추진한 시기이다. 북한은 사상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위기를 이용하여 수령승계를 制度的으로 완비하려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저작은 제1시기에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제2시기에 김일성주의로 발전시키고, 제3시기에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제4시기에는 체제이론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각 시기마다 김정일의 조직활동을 바탕으로 정책이론을 전개하여 문예지도, 3대혁명소조운동지도, 경공업혁명지도, 사회활동지도와 관련된 문건발표를 통하여 각각 권력기반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의 정치 지도력은 文藝組織에서



출발하여 黨, 國家, 軍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걸맞는 이미지도 창출되었다.

#### 第Ⅳ章 金正日著作에 대한 思想·理論的 評價: 金日成著作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김정일저작에서 발견되는 사상과 이론을 김일성저작과 비교·평가해 볼 때,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토대로 概念化 및 方法論的 세련화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思想意識과 倫理性 등을 강조하는 측면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김정일이 정치생활 초기부터 문예활동을 통한 사상 교양사업을 지도하였고 그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1. 理念

#### 가. 主體思想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대외자주성과 자립정책의 일환으로 출발한 김일성의 主體思想은 김정일에 의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3차원으로 확대·발전되었고, 方法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창조성과 의식성을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주체사상 이론에 있어서 김정일은 김일성에 의해 이미 서술적 형

태로 제시된 내용을 체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일성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김정일은 ‘의식성’을 보다 중시하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등 감성적, 도적적 의무감을 강조한다.

#### 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民族主義

김정일은 김일성이 도입한 제3세계 중심의 民族개념을 韓民族으로 더욱 축소시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서구적 개념의 民族主義를 배제하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기초하여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역시 서구적 의미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간의 명확한 차별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김정일이 주장한 민족제일주의는 수령론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정당화하고,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유리한 입지를 장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보다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프롤레타리아 獨裁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수반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과도기가 끝난 후 공산주의 완성시기까지 계속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勞動黨의 유일적 지배에 기초한 김정일의 후계승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 2. 社會體制 移行問題

### 가. 社會主義 體制 崩壞에 대한 認識

김정일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역사 발전법칙의 기본흐름에서 벗어난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붕괴의 내적 요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붕괴의 주요변수로 관료주의 문제 및 탁월한 지도자의 부재, 지식인과 청소년집단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관료주의 문제는 김일성도 강조했던 내용이며, 탁월한 지도자 부재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김정일 권력승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며, 지식인과 청소년 등 체제불만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思想意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帝國主義

김일성과 김정일은 민족해방의 원칙에 기초한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을 援用하였으며, 주로 美國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계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제국주의 본질에 대해 보편적인 記述로 그친 반면, 김정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파국적 결말이라는 레닌의 명제에 동의하며, 파국적 결말의 이유로서 경제논리 외에 제국주의 非道德性이라는 소위 '내부모순'을 첨가하여 설명하였다.

### 3. 社會經濟發展

#### 가. 經濟政策

經濟規模와 地域分散 政策에 대해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으나, 김정일은 국가경제 및 郡경제의 軍事的 重要性에 대해 김일성의 견해를 약간 발전시킴으로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련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 나. 改革·開放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과학기술 교류 및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개혁·개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기본적으로는 3대혁명을 통한 經濟發展을 주장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술도입 등을 포함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 經濟成長과 住民生活 水準에 대한 認識

김정일은 1984년만 해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상대적 평가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김일성의 평가와 동일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의 經濟的 우월성으로부터 점차 心理的이고 精神的인 측면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발전의 한계성을 露呈시킨 것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한 김정일체제의 정당성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졌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 4. 自衛國防 및 統一問題

##### 가. 自衛國防

자위국방 원칙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김정일의 견해는 김일성과 동일하며, 김정일은 자위국방에 있어서도 意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 나. 統一問題

통일문제에 대해 김정일은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연방제」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구호와 민족대단결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문구, 그리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달성하자라는 내용 등 김일성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정일을 통일의 기수로 만들어 가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김정일의 독자적인 思想 내지 理論으로 주장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5. 文藝理論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대해서 김일성은 예술의 내용이 형식보

다 중요하다는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였고, 민족문화와의 연관성 및 항일혁명 문학예술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변형시킨 소위 ‘주체적 사실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김정일이 주장하는 ‘주체적 사실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한 ‘사회적 사실주의’와 다르지 않으나, 문학작품 창작활동에서 黨과 김일성의 唯一思想體系 확립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내세운다.

## 第 V 章 結 論

현재 經濟분야와 文藝분야의 교시는 김정일저작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체사상과 당건설에 관한 김정일저작의 인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향후 김정일저작은 김일성저작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1960년이나 1974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김일성저작과 김정일저작을 구분하고, 저작 인용문제를 一元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目 次

第Ⅰ章 序 論 .....	1
1. 研究의 目的 .....	1
2. 研究對象 및 研究範圍 .....	5
3. 研究方法 .....	5
第Ⅱ章 金正日著作 出版事業의 推進過程과 政治的 意味 .....	8
1. 第1段階: 基本 政策政綱 出版과 金正日의 政治的 基盤 擴大 .....	10
가. 著作 出版의 始作 .....	10
나. 部門別 主要 政策政綱 出版完備 .....	15
다. 金正日의 業績 再構成 및 指導力 移讓 .....	21
2. 第2段階: 遡及出版과 後繼者 이미지 創出 .....	24
가. 遡及出版 推進 .....	24
나. 大學生活의 이미지 脚色 .....	30
3. 第3段階: 著作出版의 體系化와 首領承繼 準備作業 .....	32
가. 著作出版 體系化 .....	34
나. 이미지 轉移 및 後繼體制의 正統性 確立 .....	38
다. 金正日 偶像化 試圖 .....	41
第Ⅲ章 金正日著作의 時期別 內容分析 .....	45

1. 文藝理論 展開期 (1964~73) .....	46
가. 唯一思想 登場 .....	46
나. 文藝理論 集大成 .....	49
2. 黨指導理論 展開期 (1974~80) .....	54
가. 金日成主義 定式化 .....	55
나. 3大革命小組運動 .....	59
3. 國家指導理論 展開期 (1981~90) .....	60
가. 主體思想의 體系化 및 理論的 補完 .....	61
나. 輕工業革命 및 社會組織活動 .....	63
4. 主體 社會主義 體制理論 展開期 (1991~93) .....	65
가. ‘우리식 사회주의’ .....	66
나. 社會主義 體制 繼承 .....	67

#### 第Ⅳ章 金正日著作에 대한 思想·理論的 評價:

金日成著作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71
1. 理念 .....	71
가. 主體思想 .....	71
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民族主義 .....	77
다. 프롤레타리아 獨裁 .....	81
2. 社會體制 移行問題 .....	84
가. 社會主義 體制 崩壞에 대한 認識 .....	84
나. 帝國主義 .....	89
3. 社會經濟發展 .....	94



가. 經濟政策 .....	94
나. 改革·開放 .....	97
다. 經濟成長과 住民生活에 대한 認識 .....	99
4. 自衛國防과 統一問題 .....	102
가. 自衛國防 .....	102
나. 統一問題 .....	103
5. 文藝理論 .....	105
第V章 結 論 .....	108
參 考 文 獻 .....	112

## 第 I 章 序 論

### 1. 研究의 目的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하여 일련의 制度的 措置를 취하는 등 정권의 후계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 되는데 이어, 1991년 12월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1992년 4월에는 원수칭호를 수여받았으며 1993년 4월에는 마침내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일체의 武力을 총지휘·통솔하는 통치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黨·政분야에서 권력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온 김정일은 최근 軍의 최고통수권자가 됨으로써 이른바 黨·政·軍을 모두 장악한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성공적인 김정일후계체제 구축에는 김정일저작을 포함한 문헌 출판·보급 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정일 저작 출판사업은 출판물과 보도가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즉 출판보도물은 당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사회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김일성은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

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강력한 무기”<sup>1)</sup>라고 강조하였다. 다양한 시민사회 집단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견이 반영되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도자의 지시 및 교시가 곧 정부의 정책이며 정강이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간이 전무한 북한사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 즉 이들 著作이 바로 북한사회의 언어이며 정부정책이자 곧 시민사회의 여론으로 간주된다. 북한의 모든 정책과 출판물은 이들 著作(選)集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형성되며 일상생활의 모든 대화나 공식연설, 학술논문에서도 저작의 인용은 필수적이다.

북한사회의 이와같은 특성 때문에 김정일의 지도력 행사는 저작출판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바꿔 말하면 북한사회에서 저작출판이 없이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 8월 3일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등 중요한 대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신의 문헌을 출판하였고, 이로써 사회 각 분야에 정책적 지침을 제공, 실질적인 정치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金正日著作 출판사업을 통하여 김정일에 대한 사상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1) 김일성, 「김일성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562.

왔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심화·발전시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제시하는 등 이데올로기적 권력승계 작업도 강화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을 일컬어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주체의 나라’ 북한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사상적 지도자로 내세운다. 김정일은 이로써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가 다원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하였고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再解釋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전반을 다루는 사상가로 격상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인민의 지도자」나 「위대한 성품」과 같은 교양서적 출판을 통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김정일의 덕성과 품모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金正日이 후계자로서 역량을 고무 갖춘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金正日이 공식 등장한 1980년 이후 김정일의 인품을 찬양하는 문예작품이 무려 5천여편이나 출판되었으며, 그외에 각종 시와 소설도 김정일의 후계자적 자질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sup>2)</sup>

이렇듯 김정일의 권력상승과 함께 김정일저작이 북한사회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정일에 대해 인민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지도자’,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통치하는 ‘인덕

2) 「조선중앙방송」, 1993. 9. 24.

정치가'로 극찬한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서 김일성의 자리를 대부분 김정일로 대체하였으며, 김일성의 연설과 담화에 의존해 왔던 국가정책도 많은 부분이 김정일의 논문과 연설문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다.

현재 북한사회에서 차지하는 김정일의 비중을 감안할 때 김정일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사상과 이론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김정일에 대한 평가만 보더라도 그가 酒色歌舞를 좋아하고 거만하여 지도자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하면, '통이크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실무지도를 통해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비춰지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평가가 상존한다.<sup>3)</sup> 현재의 북한사회가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金正日의 著作을 토대로 그 저작에 나타난 정치, 경제, 군사, 통일, 문학예술 등 사회전반에 관한 金正日의 사상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 金正日 後繼體制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김정일저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一別, 저작에 나타난 사

3) 全賢俊, “김정일의 權力承繼基盤과 政策方向에 대한 연구,”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1992.6), p. 12~16.

상체계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친 基本政策을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북한사회의 政策方向과 指導方針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對策樹立에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2. 研究對象 및 研究範圍

본 연구는 김정일 명의로 발표된 총 400여편 중 제목이 밝혀진 230여편을 해제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 230여편 중 전문이 입수된 것은 170여편에 달한다. 김정일저작은 두 권의 「선집」만이 출판되었을 뿐 김일성의 「저작선집」이나 「저작집」과 같은 全集類의 형태로는 아직 體系化되지 못하였고 논문 분량의 문건이 단행본 소책자 형태로 출판되고 있는 상태이다.

전문이 밝혀진 170여편의 문건은 「김정일선집」 제 1, 2권(75편) 및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16편),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1권~5권(103편, 제4권은 미입수) 등 全集類 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외의 개별문건은 「조선중앙년감」과 「근로자」에 수록된 문건 및 단행본 소책자에 근거하였다. 제목만 밝혀진 김정일저작에 대해서는 「로동신문」과 「근로자」, 「조선중앙년감」 등의 자료를 통해 저작의 발표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보완자료로 사용하였다.

## 3. 研究方法

해제의 방법으로는 우선 제Ⅱ장에서 김정일저작의 출판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김정일저작의 출판사업과 김정일 後繼體制 구축과정 및 수령승계 준비작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문건의 출판 및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조선중앙년감」 1983~91년 판과 1982~93년기간의 「로동신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과거의 것을 소급해서 출판한 저작들에 대해서는 「조선중앙년감」과 「로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시기와 출판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김정일저작의 시기별 저술배경과 내용구성 및 문건의 내용분석을 위해서 著作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시기를 4 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해당 시기의 저작을 주제별, 문건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시기구분에 관해서는 제Ⅲ장에서 언급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일저작에 나타난 이론적 특징을 김일성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북한내의 변화와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0년대의 對北韓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김정일의 모든 저작에는 김일성저작과 마찬가지로 發表日字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건의 제목과 함께 문건이 발표된 날짜를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문헌분석의 방법으로는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방법에 준하여 개별문건의 주제(theme)를 단위로 그 주제속에 담겨진 내용(implicit content)을 분석·평가하는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 방법과 주제별 구분에 따른 문건의 수에 근거한 양적분석

(quantitative analysis) 방법을 병행·사용하였다.



## 第Ⅱ章 金正日著作 出版事業의 推進過程과 政治的 意味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은 김정일 後繼體制 構築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후계자 선출의 기본원칙을 ‘인물분위’로 해야한다는 大原則과 전민중적 추대에 기초, 새세대 인물 선출, 수령생존시 선출이라는 세 가지 細則을 설정하고 후계문제를 풀어왔다.<sup>4)</sup> 후계자를 인물분위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개인적 인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북한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비범한 예지(知), 고매한 덕성(仁), 탁월한 영도력(勇)이라는 세가지 세부덕목으로 구분하여 김정일이 이를 모두 겸비한 인물로 이미지 창출(image making)을 시도하였던 것이다.<sup>5)</sup>

김정일著作의 출판·보급사업은 김정일의 ‘비범한 예지’를 선전하기 위한 필수수단이다. 김정일의 지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그를 사상이론가로 만들기 위해 ‘사상이론의 영재’나 ‘사상이론의 거장’이니 하는 구호를 내걸고 저작 출판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비범한 예지를 지니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뛰어난 예지가 있어야 복잡다단한 시대적, 사회적 제 현상을 바르게 헤

4)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1989), p. 38~52.

5) 김재천, 위의 책, p. 35~37, 97~136.

아려볼 수 있고 그 발전의 방향각과 지향성도 가늠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고 내일을 구상하고 그 실현을 위한 묘책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혁명위업계승의 대업을 맡고 있는 후계자는 특출한 예지를 지님으로써만 수령의 혁명사상에 정통하고 빛나는 사상이론활동으로 그것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높은 정치적 식견과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김정일비서께서는 바로 그러한 특출한 예지의 체현자이시다.<sup>6)</sup>

이러한 저작 출판사업은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사상이론가적 자질을 선전하는 수단이 되지만, 각종 투쟁구호와 문예지도, 경제건설 지도 등 사회 각 분야의 政策提示가 저작출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탁월한 영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저작은 김정일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고매한 덕성’의 소유자임을 선전하는 기능도 아울러 갖는다.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은 크게 3段階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1단계는 1982~84년까지로 북한사회의 각 분야에 政策指針書로 사용할 수 있는 문건들을 발표·출판한 것이다. 제2단계는 1985~87년 사이에 진행된 출판사업으로 이 단계에서는 미발표된 과거의 저작을 발굴하여 溯及出版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김정일의 과거활동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제3단계는 1988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진행중인 단계로 김정일 首

6) 김재천, 위의 책, pp. 97~98.

領承繼를 염두에 두고 김일성으로부터의 수령 이미지 전이, 정권의 정통성 창출 및 저작출판 體系化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1. 第1段階: 基本 政策政綱 出版과 金正日의 政治的 基盤 擴大

### 가. 著作 出版의 始作

김정일저작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된 시기는 1982년으로 「조선중앙년감」은 이에 대해 “1982년에 출판부문에서 이룩된 특기할 만한 성과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문헌을 출판한 것이다”라고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의 중요성과 첫출판을 입증하고 있다.<sup>7)</sup> 그후 지금까지 발표된 김정일저작은 총 400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1982~86년까지 4년 동안 출판된 김정일저작은 단행본으로 무려 1백여편이나 되었고, 그후 1989년 3월까지 3년동안 100여편, 1992년 2월까지 3년동안 200여편을 추가로 출판하였다.<sup>8)</sup>

총 400여편 중 全文이 밝혀진 170여편의 문건을 그 형태별

7)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 376.

8) 「조선중앙년감 1987」, p. 287; 「조선중앙방송」, 1992. 1. 26.

로 살펴보면 演說文, 結論文, 談話文, 書翰文, 論文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중 談話文, 演說文, 結論文 등은 주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이나 문화, 교육, 과학, 보건, 체육 등 각 부문 종사자들과 가진 대화나 연설을 기록한 것이며, 書翰文의 경우는 주요 대회나 강습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글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論文은 주요 기념일에 즈음하여 발표한 경우가 많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처럼 다수의 저작을 발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저작은 김일성·김정일저작 편찬위원회에서 주체사상 이론가 및 당 이론가들이 직접 저술을 담당하였거나 김정일이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쓴 글의 골격에 내용을 첨가하여 저작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의 저작은 현지지도와 실무지도를 토대로 만들기도 하고, 구술한 지시내용 등을 근거로 완성했을 가능성도 높다.<sup>9)</sup> 즉 김정일의 저작들은 대부분

9) 김정일저작이 김정일의 발언이나 현지교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출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로동신문」에서 김정일저작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문건의 최초 공개시에 제목을 밝히지 않고 내용중심으로 소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문건의 제목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당 제6차 대회를 앞두고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문건」(「로동신문」, 1985. 1. 7)으로 처음 보도되었던 것이 1990년 1월 8일자 「로동신문」에는 그 제목을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외에도 1978년 7월 13일 문건 “당안에 혁명적 규율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도 그 내용이 1983년 7월 13일에 처음 공개되었지만 제목이 밝혀진 시기는 1988년 7월 13일이며, 1981년 3월 8일 문건 “당 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도 1984년 3월 8일에 처음 공개되었지만 제목이 밝혀진 시기는 1985년 7월 23일이다. 1974년 4월 14일 발표한

분 그가 언급한 발언을 중심으로 思想, 理論擔當 秘書들이 채록한 다음,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연설문이나 결론문의 형태로 출판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김정일저작이 1982년에 첫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북한내에서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이 시기에 확고해 졌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일은 6차 당대회(80. 10)에서 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권력승계자로 부상하였다.<sup>10)</sup> 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黨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당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으로 김정일이 상무위원에 진출한 것은 김정일의 당적 지위를 제도화함으로써 권력승계를 대비한 것이었다. 북한은 6차당대회 직후에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오늘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가장 영광스러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하였다.<sup>11)</sup>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문건과 1974년 8월 2일 발표한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문건」도 제목을 밝히지 않거나 「1974년 8월 2일 문건」 등으로 보도하다가 1987년에 제목이 밝혀졌다.

- 10) 제6차 당대회 이전에 이미 북한정권은 김정일 체제로 전환되었다. 1980년 1월과 2월에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 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대오로 되었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당중앙의 의도와 방침이 하부 말단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있으며 그것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근로자 편집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의 새로운 이정표,” 「근로자」 (1980년 제1호), p. 10; 근로자 편집부, “우리당은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 「근로자」 (1980년 제2호), p. 4.
- 11) 근로자 편집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근로자」 (1980년 제12호), p. 7.

김정일은 1981년 5월부터 구체적인 실무지도에 착수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지도자로서 그 활동이 표면화되었고, 1981년 10월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 제7차 대회에서 김일성 다음의 2순위로 격상되었다. 김정일은 또한 1982년 2월 28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선거에서 황북 송림지역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黨의 제2인자로 부상한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에 진출함으로써 정계에서도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어 감에 따라 후계자로서의 사상가적 자질을 선전하기 위한 작업으로 1982년에 저작 출판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1982년은 소위 ‘꺾어지는 해’로 김일성에게는 古稀의 해이며 김정일에게는 40회 생일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기 위해 북한은 1979년부터 「김일성저작집」출판을 시작하였으며<sup>12)</sup> 1979년 5월부터는 北韓歷史를 새롭게 조명·정리하는 「조선전사」출판사업을 추진하여 김일성 70회 생일 이전인 1982년 3월에 일단락지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경기장,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는 각종 기념비를 1982년에 맞추어 완공하였다. 이러한 의미

12) 1979년 4월 첫 출판된 「김일성저작집」 제1권 서문에서는 이 책이 1982년에 완간한다는 목표로 출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에 대한 인민들의 높은 수요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그의 탄생 70돐을 맞이하면서 〈김일성저작집〉을 출판한다”라고 하였다.

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중앙인민위원회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생일에 맞추어 이들에게 각각 ‘영웅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김정일과 김일성에게 충성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출판사는 1982년 「위대한 품모」와 「인민의 지도자」 제 1, 2부 등을 출판하여 김정일에 대한 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의미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1982년 3월 31일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자신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보내게 된 것이다.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理論的 深化와 方法의 具體化를 통해서 체계화한 이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논문을 출판·보급하는 것은 사상이론가로서의 자질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발표 즉시 전문이 공개되지 않다가 「근로자」와 「로동신문」 등에서 한달 내지 두달 후에 이 문건에 대해 취급하였으며<sup>13)</sup> 이 문건의 본문을 인용한 시기는 1982년 10월이다.<sup>14)</sup>

1982년 10월에 김정일저작에 대한 선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1982년 9월 16일~25일 김일성이 中國을 방문하여 김정일 후계체제문제를 의논하고 돌아온 사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 이러한 권력기반이 구

13) 근로자 편집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근로자」 (1982년 제5호); 「로동신문」, 1982. 6. 7, 6. 28.

14) 「근로자」 1982년 제11호 참조.

축되어 감과 동시에 김일성은 1982년 9월 中國을 방문하여 중국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이 중국의 實用主義 路線을 채택하여 합영법 등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중국의 양해를 얻어내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 나. 部門別 主要 政策政綱 出版完備

1982년부터 시작된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은 1984년 말까지 사회 각 분야의 정책지침서로 사용할 김정일의 주요 저작이 출판됨으로써 저작출판의 1段階를 맞는다. 즉 1982~84년 기간 동안 북한은 주체사상, 당건설, 경제, 청소년활동, 예술, 교육, 군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긴요하게 인용할 교시를 金正日著作으로 代替하고, 이를 각 인민반과 직장, 학교에서 학습하며 토론회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천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작업장까지 김정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에 대한 권위있는 解釋權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기존에 언급했던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출판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 논



문이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해 10월이며 이는 그의 두번째 논문의 출판과 관계된다.

1982년 10월 김정일은 두번째 논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드>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를 1982년 10월 17일자 「로동신문」 1~3면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트·드>(타도제국주의 동맹)결성 56주년을 맞이하여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56주년이란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해가 아니라서 크게 기념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명의로 이 논문을 발표한 것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영역, 즉 항일혁명전통과 黨建設에 대한 통찰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위상은 이 논문발표를 계기로 크게 상승되었다. 이 문건은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논문과는 달리 발표 직후 대대적으로 인용되었으며 당건설 부문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문헌으로 간주되었다.<sup>15)</sup> 「로동신문」은 이 논문발표 4일만에 사설에서 김정일의 교시형식으로 인용하였고, ‘당중앙’을 7회,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7회나 사용하는 등 김정일의 입지를 크게 강조하였다.<sup>16)</sup> 또한 이 논문은 「로동신문」이 김정일저작 출판소식에 대해 정규기사의 형태로 보도된 첫 논문이며,<sup>17)</sup> 이 때부

15) 「근로자」 1982년 제12호 참조.

16) 「로동신문」, 1982. 10. 21.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로동신문」과 「근로자」 등에서 김정일의 문건을 교시로 인용하지 않았으며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논문내용이 인용된 것도 이후의 일이다.

17) 1982년 10월 25일자 「로동신문」은 쿠바방송이 이 저작에 대해 보도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기사화하였다.

터 제2면 상단에 김정일저작의 해외출판 소식란을 고정적으로 게재하였던 것이다.

1983년 5월에는 칼 맑스 서거 10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에 대해 맑시즘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사상으로 해석하였고, 이로써 주체사상 분야에서 권위있는 理論家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sup>18)</sup> 1984년 4월에는 1974년 4월 2일에 발표했다는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출판함으로써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이 성급하게 구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해석할 만한 이론가적 자질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이것은 1986년 “주체사상의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86.7.15)”를 발표, 주체사상 이론을 보완함으로써 김정일은 완벽한 주체사상 이론가로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1984년 2월 16일에 발표, 출판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는 김정일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논문이다. 이 논문이 출판된 이후 북한의 모든 經濟政策은 김정일의 이 논문을 인용하게 되었으며 그후 경제정책의 성공은 전적으로 김정일의 공적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이라든지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광복거리, 통일거리 건

18) 「근로자」 1983년 제5호 참조.

설 등의 성과는 이 논문의 교시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도되어 김정일의 공적으로 간주되었다.

1984년 7월에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와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출판함으로써 國家教育 전반에 걸친 정책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량은 적지만 軍事分野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민군대는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제도와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라는 문건도 1984년 4월에 발표하였다.<sup>19)</sup>

統一에 관한 문건 출판은 없지만 1984년 두 권으로 출판된 「김정일 지도자」<sup>20)</sup>는 김정일이 통일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김정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바로 조국통일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 문제를 두고 제일 심려하십니다. 그야말로 조국통일을 이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이로부터 김정일동지께서는 거족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폭넓게 펼치시었다”라고 쓰고 있다.<sup>21)</sup> 나아가 김정일은 고려연방제가 제안된 1980년부터 각종 통일관련 사회단체들의

19) 「로동신문」, 1986. 4. 25;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 130~132.

20) 1984년 7월 일본의 東邦社에서 「김정일지도자」 제 1, 2부가 출판되었으며 1985년에 未來社에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로 번역·출판하여 김정일에 대한 위상정립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85년 10월 8일자 미국 「뉴욕타임즈」지가 김정일의 사진과 함께 이 책의 출판사실에 대해서 크게 보도한 사실을 선전하였다. 「로동신문」, 1987. 10. 6.

21) 卓珍 金剛一·朴弘濟, 「김정일지도자 2」(동경: 東邦社, 1984), pp. 401~402, 404.

조직을 지도했다고 선전하였다.

이와같이 김정일저작은 1984년 말까지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指針書로 자리잡았고 김정일의 政治的 基盤도 확대되었다. 저작출판이 시작된 1982년 10월이후 1984년까지 저작출판과 함께 김정일의 정치적 입지가 확보되는 과정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82년 10월 22일자 「로동신문」은 주체사상과 농업문제에 관한 말가슈 전국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토론회장에 김일성 사진과 김정일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일의 이름을 제1면에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실무지도를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김정일의 지위를 김일성과 동격으로 취급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기사는 1983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제1면을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 1월 16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일동지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작공연 10돛에 즈음한 경축야회공연을 보았다”라는 기사를 크게 보도하였으며, “영화를 이용한 사상사업전개”(2월 7일자 사설),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자”(2월 15일자 논설), “남포감문 현지도”(4월 21일자) 등 김정일은 「로동신문」의 前面에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4년 11월에 이르러 김정일의 근황과 저작출판에 대한 기사가 「로동신문」의 제1면 첫머리에 보도되는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혔다.<sup>22)</sup> 동시에 후계

22) 「로동신문」, 1984. 10. 23, 11. 9, 11. 17, 11. 24, 11. 27, 12. 8. 참조.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의 강도가 높아져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우리당의 밝은 전도,” “우리 당에 의한 주체의 혈통의 빛나는 계승” 등으로 보도하였다.<sup>23)</sup>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第1段階 과정에서 북한이 1983년 2월 2일 전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는 사실은 1993년 3월 8일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취했던 「준전시상태」 선포 조치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다. 「준전시상태」 선포가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취해지긴 했지만 김정일 권력상승의 절정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1982년 9월 김일성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김일성이 구상한 김정일 후계체제 추진이 가속화되어 그해 10월부터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이 시작되었다. 著作 全文을 「로동신문」에 게재하고 김정일에 관한 현지지도 및 정치활동 기사를 제1면에 보도하며, 김정일의 훈장 수여에 관한 기사를 김일성의 경우와 같은 비중으로 보도·격상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후계승계 추진작업에 따르는 대내적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1983년 2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대외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83년 6월 中國訪問을 통하여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서 외교적 교류를 취함과 동시에 중국의 改革·開放狀況을 견학하고 북한정책의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추

23) 「로동신문」, 1984. 10. 14, 1985. 1. 24.

어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정책지침을 저작출판을 통하여 제시하고 對住民 통치기반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 다. 金正日의 業績 再構成 및 指導力 移讓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의 추진과 함께 이 시기에 김일성에게 모든 치사를 들렸던 功績에 대해 經濟指導에 관한 김정일의 뜻을 따로 구분하여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때까지 김일성이 추진한 것으로 간주했던 각종 대중운동, 즉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3대혁명 소조운동’,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등의 업적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에 대해서 “일찌기 당의 은혜로운 해밭이 비낀 그 나날로부터 26호선반은 기대관리에서 따라 배워야할 모범기대로 빛나고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기업관리에서 설비관리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헤아리고 설비관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었다”라고 김정일의 업적을 새롭게 정리하였다.<sup>24)</sup> 3대혁명에 대해서도 1982년 10월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3대혁명 소조운동은...”라고 하여 김정일에 대한 구체적 이름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또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의 구호에 대해

24) 「로동신문」, 1982. 7. 18.

25) 「로동신문」, 1982. 10. 21.

「로동신문」 1982년 11월 5일자 사설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전진의 위대한 기치이다. 우리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 구호를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김정일의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하였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도 김정일이 시작한 것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sup>26)</sup>

동시에 김일성의 指導力에 대한 일정부분을 김정일에게 이양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82년 10월 23일자 「로동신문」의 “대담한 공격전으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끄는 위대한 령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령도방법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김정일의 지도력을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sup>27)</sup>

한편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해외 선전활동을 강화하여 조총련과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등을 주축으로한 海外 組織網을 통해 김정일의 후계문제가 거론되었고 북한은 이를 보도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김정일에 대해 사용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이 해외에 조직되어 있는 주체사상 연구소와 김일성주의 연구회 등에서 먼

26) 「로동신문」, 1982. 11. 6.

27) 「로동신문」, 1982. 10. 23.

저 사용되었고 북한은 이를 보도하였다.<sup>28)</sup> 북한은 가나 아프리카 청년단체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미래는 참으로 휘황찬란합니다”라고 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서 김정일에 대한 對住民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sup>29)</sup> 같은해 9월 일본 주체사상 연구회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김정일비서를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추대함으로써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라고 함으로써 김정일 승계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언급을 하였다.<sup>30)</sup>

이와같은 시도는 「조선문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선문학」은 1981년 말부터 김정일 讚揚詩를 매 호마다 3~4편씩 수록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 詩들은 모두 외국인들이 지은 것들로 김정일의 국제적 지위와 후계자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한 대내 선전적 차원에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28) 1982년 1월 일본의 김일성주의 연구회 및 주체사상 토론회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로동신문」, 1982. 1. 6, 1. 12. 주체사상 연구회 말가슈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이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로동신문」, 1982. 2. 11.

29) 「로동신문」, 1982. 2. 14.

30) 「로동신문」, 1982. 9. 15. 특히 김정일 후계승계 지지는 일본을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993년에는 「김정일저작 연구회」, 「김정일저작 학습회」 등 10여개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3. 8. 23.

31) 호센찌 예도, “김정일동지께(시),” 지.티.미삼비, “김정일동지를 우러러(시),” 알루어라 코리누아, “새별, 김정일동지(시).” 아드난 아브 둘 왈리. “주체의 새별 온누리를 비쳐주네,” 「조선문학」 1981년 제12호.



이는 외국문출판사를 통한 해외 번역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해외 번역출판은 10년동안 400여종의 문헌을 외국어로 번역·출판하여 보급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sup>32)</sup> 외국문출판사는 대외선전 출판물의 목표를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특출한 품모와 자질, 그리고 위대한 사상리론적 업적과 영도업적에 대해 선전”하는데 두고, 지역별, 대륙별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수준 및 북한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하여 출판 저작물의 대상을 선정해서 출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그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sup>33)</sup>

## 2. 第2段階：遡及出版과 後繼者 이미지 創出

### 가. 遡及出版 推進

김정일의 과거저작을 발굴하여 遡及出版하는 작업은 김정일 後繼體制 構築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총 400여편에 달하는 김정일저작중 발표된 연도의 「조선중앙년감」과 「로동신문」에 전문이 수록되어 사실성 여부가 문제시되지 않는 문건은 총 30여편으로 전체 저작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나머지 90%의 저작은 과거의 작품을 소급해서 출판한 것들로 볼 수 있다. 김정일저작이 첫 출판된 시기가 1982년이므로 발표일자가 1982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 문건은 기본적으로 소급

32) 「로동신문」, 1993. 2. 13.

33) 「평양방송」, 1993. 11. 19.

출판한 것이며, 그 후 발표된 문건도 많은 경우 소급출판한 것들이다. 이러한 소급출판의 시도는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창출해 내기 위한 것이었고, 사상가로서의 자질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작을 정리·출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김정일저작의 소급출판 사업은 1985~87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소급출판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 시기에 과거의 문건이 집중적으로 출판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일 먼저 1964년 3월 18일자로 된 김정일의 대학 졸업논문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출판하였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1984년 3월 18일자 「로동신문」에 논문발표 20주년 기념일과 관련하여 처음 언급된 바 있으나 全文이 게재 공개된 것은 1985년 3월이 처음이다.<sup>34)</sup> 이 논문은 김정일이 이미 대학시절부터 사상이론가적 자질이 있었음을 선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적중하여 1989년 출판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에서는 김정일의 후계자적 자질에 대해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고 있다. 즉 “김정일비서께서는 회세의 거인으로 민중앞에 부상하신 것은 특히 그 분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196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시작하신 무렵부터였다”라고 기술하게 된 것이다.<sup>35)</sup>

34)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근로자」 1985년 제3호 (평양: 근로자사, 1985), pp. 3~27.

35)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71.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출판함과 동시에 經濟關聯 文件을 소급출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3대혁명을 힘 있게 벌여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75.7.1),” “농촌 경리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76.2.6),” “당안에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78.7.13),”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85.8.3)” 등을 출판하였다. 이들 문건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와 함께 경제분야를 다루는 김정일의 중요한 저작으로 간주되었다.

경제관련 문건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판해 낸 이유는 1984년부터 김정일정권이 표방한 輕工業革命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김정일이 경제정책 이론가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1985년 6월에는 「1985년 6월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하여 1986년 초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하여 광복거리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sup>36)</sup> 이러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김정일의 실무지도 횡수도 늘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김정일에 관한 기사도 늘어났다.

한편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78.3.1),”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36) 「로동신문」, 1986. 1. 22.

(81.3.31),” “사범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82.11.21)” 등 社會文化 分野의 저작을 발굴·출판함으로써 통치력의 영역을 확대하며 지도자적 이미지 창출을 시도하였다. 김정일의 文藝理論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인 「영화예술론」도 이 시기에 공개됨으로써 ‘문학예술의 천재’라는 김정일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발표일자가 1973년 4월 11일로 되어 있는 이 「영화예술론」이 처음으로 소개된 시기는 1983년 3월 28일<sup>37)</sup>이며 1985년 4월 「근로자」에는 「영화예술론」에 대한 書評을 통해 내용의 일부가 밝혀졌다.<sup>38)</sup> 「조선중앙년감」은 1986년에 「영화예술론」의 첫부분 「생활과 문학」이 외국문출판사에서 번역출판한 사실을 보도하였으며, 1987년 1월에는 「주체적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2권에 全文이 공개되었고,<sup>39)</sup> 그해 5월에는 에쿠아도르에서 단행본으로, 10월에는 세계 각국어로 번역·출판하였다.<sup>40)</sup>

37) 「로동신문」, 1983. 3. 28.

38) 장형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의 백과전서: 〈영화예술론〉에 대하여,” 「근로자」(1985년 제4호), pp. 45~50. 이 書評은 「영화예술론」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무용예술론」, 「주체문학론」에 대한 서평이 저작의 장별 구성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이 시기에 「영화예술론」이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3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00~448.

40) 「조선중앙년감 1987」, p. 287; 「로동신문」, 1987. 5. 1, 1987. 10. 2. 「영화예술론」이 발표되었다고 하는 1973년 북한은 김정일을 ‘당중앙’으로 지칭하면서 “당중앙에서는 종자론과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새롭게 내놓으시고 종자를 바로잡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자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시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74」, p. 231. 「영화예술론」의 핵심인 종자론에 대해서 언급

이들 문예관련 저작은 1986년에 출판된 「조선회창작리론」, 「무용예술리론」, 「공예 및 산업미술창작리론」, 「교예예술리론」, 「기악창작리론」 등 문예이론 총서와 함께 김정일의 이미지를 한층 提高시켰다. 동시에 김정일이 문학예술부문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는 「문학예술의 영재」를 출판하여 문예분야의 天才性을 집중적으로 선전하였다.

그외에 1981년 문건 “당 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81.3.8)”와 1974년에 발표한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74.4.14)” 및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80.12.3)”를 차례로 출판하여 黨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經濟關聯 文件과 文藝關聯 文件의 소급출판 사업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급출판이 1985년에 시작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980년 10월에 김정일이 권력서열 제2인자로 부상했지만 사회주의 주변국가들로부터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받은 것은 1984년에 이르러서였다. 中國으로부터는 이미 1982년 9월 김일성의 중국방문시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은 1973년에 「영화예술론」의 핵심인 종자론과 속도전에 대한 내용을 저술했고, 1983~86년에 김정일 이론가들에 의해 보완되어 완성본으로 출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후 이 저작의 부분, 혹은 완성본을 외국문으로 출판하여 해외에 배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9년에도 외국문출판사가 책 전부를 번역·출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90」, p. 183.

며,<sup>41)</sup> 1983년 6월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1984년 5월 中國 共產黨 총서기 胡耀邦의 북한방문을 통하여 김정일체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4년 11월에도 김일성은 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鄧小平과 회담하고 「합영법」 등 중국방식의 실용주의 정책을 북한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약속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체제 개혁을 담당할 김정일정권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일성은 1984년 5월과 6월 강성산, 공진태, 이종옥, 오진우 등을 帶同하고 약 6주간에 걸쳐 蘇聯과 東유럽國家들을 순방하면서 경제 및 군사적 지원문제를 협의하였고, 이때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지원문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소련을 위시한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김정일저작 소급출판 사업은 강성산 등 改革派 세력이 김정일의 經濟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後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1월 25~27일)에서 제1부총리였던 강성산은 이종옥의 후임으로 총리에 선출되었으며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11월 29일)를 계기로 이근모에게 직책을 넘겨주기까지 총리로 재직하였다. 이는 김일성의 인척인 강성산으로 하여금 과감한 경제개

41) 國土統一院, 「北韓의 外交實態와 特徵」(서울: 國土統一院, 1986). p. 21.

혁을 실시하도록 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강성산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경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김정일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들은 김정일의 과거저작에 대한 소급·출판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經濟分野와 文藝分野 문건을 중점적으로 출판함으로써 경제에 비중을 둔 김정일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예이론가로서의 이미지 관리에 주력하였다.

#### 나. 大學生活의 이미지 脚色

대학재학중에 발표했다는 저작들은 김정일에 대한 천재적 신화를 창조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986년 조선노동당출판사의 김정일의 대학생활 소개책자를 보면 북한이 김정일의 대학생활 중의 저작 출판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선노동당출판사는 書名을 「사상리론의 영재」라고 붙였으며 김정일의 저술활동 영역을 주체사상, 당, 혁명전통, 교육, 경제학설, 학문, 문학예술, 반제통일 등 8개분야로 분류하여 각각의 논문을 고르게 수록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 모든 분야의 知的 能力과 知識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이 自明하다. 김정일의 효성과 충성심 등 덕성과 인품에 대한 교양문헌은 김정일의 어린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指導者로서의 자질과 思想理論의 天才性을 증명하는 저작은 고등학문의 터전인 대학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도

였을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18편의 김정일 대학시절의 저작 중 가장 먼저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1960년 9월의 “대학 민청단체들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문<sup>42)</sup>으로 이는 김정일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술활동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문건중 奎文이 밝혀진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뿐이며 나머지는 제목만 밝혀진 것들이고, 그 외 제목을 밝히지 않고 내용만 언급한 문헌도 상당수 발견된다.

주체사상에 대한 저작은 없지만 김정일이 여러 나라의 유학 권유를 뿌리치고 김일성대학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사실부터 주체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대학생활 중에도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62. 2. 22)” 등을 발표할 정도로 思想性과 革命性이 투철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독창적인 經濟學說을 가지고 북한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시기의 ‘불후의 저작’으로 불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위시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 등을 발표·출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黨관련 문건도 다수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김정일이 김일성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생들에게 한 담화 “당과 수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

42) 朴奎植, 「김정일 평전」(서울: 陽文閣, 1992), p. 223;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상리론의 영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88~89.



로 되자(64.3.30)”를 비롯하여 “대학생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63.7.29),”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62.9.19)” 등의 문건이 공개되었다.<sup>43)</sup> 그의 혁명전통과 교육, 문예이론에 대한 문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김정일이 대학시절부터 統一問題와 이와 관련된 帝國主義 問題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최근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1960년 10월에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sup>44)</sup>했고, 1962년 1월 15일에는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김정일이 일찌기 대학시절부터 제국주의 및 사회주의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으며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묘사한다.

### 3. 第3段階: 著作出版의 體系化와 首領承繼 準備作業

김정일에 대한 후계자승계 문제가 김일성의 공식발언으로 언급된 1986년 5월<sup>45)</sup> 이후 북한은 首領承繼를 위한 저작출판으

43) 「로동신문」, 1984. 3. 18, 3. 30, 7. 29.

44)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상리론의 영재」, pp. 277~278.

4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16.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연설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에서 金日成은 당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

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북한은 수령승계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이양하고 김정일정권의 정통성 수립을 위한 출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수령승계 준비작업으로 1988년 9월말부터 1989년 5월초까지 8개월 동안 무려 13편의 김정일저작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었다.<sup>46)</sup>

김정일이 당시 1년전에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87.9.25)”의 전문을 「로동신문」에 게재하여 제국주의 위협에 대한 경계의식을 강화하며 1987년에 저술된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공개함으로써 思想武裝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후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sup>47)</sup> 등의 문건을 출판·보급함과 아울러 김정일의 수령승계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후계자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명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후계문제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46) 「内外通信」 종합판 39호, pp. 70~75.

47) 「로동신문」, 1988. 6. 14.

## 가. 著作出版의 體系化

### (1) 統一分野의 補完

統一問題에 대한 김정일의 독립적인 문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1988년 10월 “현시기와 청년들의 임무,”와 1989년 10월 “꾸바신문 〈그란마〉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는 문건의 마지막 부분에 남북통일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저작의 내용구성이 한층 발전된 것이며 한 문건에 정치, 외교, 경제, 통일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김일성의 문건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인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이 1988년 11월 7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통일지향, 미군철수, 남북군축, 당사자협상 등을 내용으로하는 소위 ‘평화보장 4원칙’을 제시하여 統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다.<sup>48)</sup>

북한은 김정일의 수령승계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통일분야에서 김정일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거슬러 올라가 1984년부터 통일문제에 관여했던 것으로 최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출발점을 1984년 9월 북한이 남한에 수재민 구호물자를 전달한 시기로 보고 이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민족간 화해 및 대화 분위기 조성

48)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237.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같은해 12월 김정일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을 결성하였고, 1985년 9월, 8.15 40주년 기념으로 성사되었던 남북간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상호방문도 모두 김정일의 공적으로 치하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지대한 영향력을 부각시켰다.

## (2) 文藝理論의 綜合整理

김정일의 문예이론에 관한 문건을 묶어 「주체의 문학예술에 관하여」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하기 시작하여 1990년까지 제5권을 출판하였다.<sup>49)</sup> 동시에 1990년대 들어 「무용예술론」(90.11.30), 「미술론」(91.10.16), 「음악예술론」(91.7.17), 「건축예술론」(91.10.23), 「주체문학론」(92.1.20) 등 일련의 사회주의 文藝理論에 관한 저작을 體系的으로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사상가적 자질이 문예이론에서 출발했으며 현재도 문예분야의 수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먼저 이 분야의 문헌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11월 30일에 발표한 「무용예술론」은 생활과 무용, 무용창작, 무용과 형상, 무용표기 등 4장 20절로 구성된 문헌으로 무용예술분야의 강령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1년 10월 16일에 발표한 「미술론」은 인간과 미술, 조형과 형상, 종류와 형태, 미술가와 창작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예술론」은 주체음악, 작곡, 연주, 음악후비육성 등 4장으로 이루어져

49) 「조선중앙년감 1991」, p. 219.

있으며, 「건축예술론」은 건축예술에 관한 사상과 이론 및 지도 방식을 체계화한 김정일의 문헌으로 건축과 사회, 건축과 창작, 건축과 형성, 건축과 지도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0)</sup> 1992년 1월 20일에는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여 文學創作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주체문학론」은 시대와 문예관, 유산과 전통, 세계관과 창작방법,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 생활과 형상, 문학형태와 창작실천, 당의 영도와 문학사업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김정일선집」出版

북한은 김정일의 50회 생일 기념으로 1992년 2월 14일 최초로 全集類 형태인 「김정일 선집」 제1권을 출판함으로써 김일성저작과 같은 형태로 김정일저작의 본격적인 體系化 作業에 착수하였다. 이는 金正日著作을 첫 출판한 1982년 이래 10년 동안 진행된 단행본 저작출판 사업을 全集形態로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선집」 1권에는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1964년 4월부터 1969년 9월까지 발표한 46편의 문건을 수록하고 있다. 이듬해인 1993년 1월에는 「김정일 선집」 제2권을 출판하였다. 이 「선집」 제2권에는 1970년부터 1972년 사이에 발표한 문건 29편을 수록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이 문헌들에 대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

50) 「로동신문」, 1991. 5. 21.; 「내외통신」, 1992. 10. 24.

의 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힌 대백과 전서라고 극찬하였다.<sup>51)</sup>

「김정일선집」에 수록된 문건은 대부분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에 대해 「선집」 제1권의 서문에서는 “이미 발표된 문헌들과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문헌들 가운데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헌들을 선택하여 수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정일선집」 제1권의 기간을 대학졸업 이후로 설정한 것은 김정일의 대학생활을 신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치 김일성이 1945년 8월 해방이후에 발표한 문건만을 공식문건으로 다루어 오다가 1979년 「저작집」 출판과정에서 항일투쟁시기의 저작을 삼입함으로써 김일성의 혁명가 내지 지도자적 자질이 해방후 김일성의 공식활동 이전에 이미 內在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과 흡사하다. 이렇듯 김일성의 영웅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던 김일성저작의 체계화 전략에 따르면, 김정일저작도 「김정일선집」에서는 일단 공식활동에서 발표한 문건들만을 수록하고 차후 「김정일저작집」이 출판되는 단계에서 1964년 이전 발표된 문을 연결시킴으로서 김정일의 이론가적 자질의 內在性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51) 「로동신문」, 1992. 2. 14.

## 나. 이미지 轉移 및 後繼體制의 正統性 確立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김일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찬사의 초점을 일차적으로 分散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는 카리스마 승계를 위한 이미지 분산 및 흡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김일성을 항일혁명투쟁의 인물로 상징화하고 김정일을 현 시대의 유능한 지도자로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일의 카리스마 승계를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1987년 말부터 북한은 김일성 항일투쟁사를 중점 강조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1987년 11월 북한은 소위 ‘구호나무’라는 것을 소개하였는데<sup>52)</sup> 이 ‘구호나무’는 항일혁명운동 당시 나무에 꺾질을 벗기고 각종 투쟁구호 및 김일성 찬양구호를 새겨 놓은 것으로 북한은 이를 “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적 재보”라고 칭송하였다. 이를 계기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해 나간 것과 때를 맞추어 김일성 항일혁명을 선전하는 문헌들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sup>53)</sup>

이러한 시도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1991년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조선로동당력사」이다. 이것은 1979년 출판했던 「조선로동당략사」를 개정·출판한 것이다. 「조선로동당략사」는 모든 내용이 金日成 위주로 되어 있었으며 金正日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것을 「조선로동당력사」에서는 항일

52) 「로동신문」, 1987. 11. 7.

53) 「로동신문」, 1987. 11. 4, 11. 15, 12. 4, 1988. 1. 7, 3. 11, 4. 14, 6. 6, 10. 7.

혁명투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김일성의 이름을 삭제한 대신 김정일의 이름을 첨가함으로써 김일성의 업적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호도하여 김정일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1986년 5월 후계자 문제의 해결에 대한 김일성의 공식발언이 있는 후부터 1991년 사이에 진행되었음은 분명하며, 아래에서 언급된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1988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5월 김일성이 後繼者 問題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밝히자 이 때부터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1987년 제2호에서 후계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혈통을 계승해 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려 당과 혁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놓고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양양한 전도를 활짝 펼쳐놓으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혈통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 진군을 끝까지 향도할 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다.<sup>54)</sup>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령도자로서

54) 강석승,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 「근로자」 1987년 제2호(평양: 근로자사, 1987), p. 12.



의 뛰어난 자질과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셨으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천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 나갈 때만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였다.<sup>55)</sup>

또한 「로동신문」에서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라는 김정일의 현지도에 관한 기록영화를 해외에서 제작·상영하였으며,<sup>56)</sup>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예술”,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 등의 내용으로 후계자 문제를 자랑스럽게 거론하였다.<sup>57)</sup>

나아가 1988년 북한은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의 한해 1974」를 제작·상영하여 김정일이 1974년에 이미 후계자로서 추대된 것처럼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는 김정일이 1974년 2월 19일 문헌에서 강조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한 의미있는 해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일대발전을 일으킨 해로 기록하였다. 이 영화는 김정일이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닌 지도자로서 그 위상이 1974년에 정립된 것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이 해가 김정일의 정치적 부상 과정에서 매

55) 염기순, “우리 당은 일심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혁명적 당,” 「근로자」 1987년 제2호(평양, 근로자사, 1987), p. 29.

56) 「로동신문」, 1986. 9. 22.

57) 「로동신문」, 1986. 11. 9, 11. 11, 12. 4, 12. 18.

우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였다.<sup>58)</sup>

1991년 확대출판한 「조선로동당력사」는 1979년의 「조선로동당력사」에 없던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의 빛나는 해결」이라는 새로운 절을 삽입하고 1973~4년에 이미 김정일을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한 것으로 출판함으로써 金正日 後繼體制의 正統性 창출을 시도하였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하는데 이어 197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추대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한 후계자,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당과 혁명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sup>59)</sup>

이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1974년에 등장했다는 내용이 1991년 김정일 偶像化작업의 일환으로 삽입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다. 金正日 偶像化 試圖

1988년 2월 김정일의 46회 생일을 기해 金正日花를 재배·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에 대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징물로서 의미가 있으며 1988년 4월부터는 ‘김정일花 연구집

58) 「조선중앙년감 1989」, p. 263.

59)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73.

단'을 조직하고 중앙식물원에 '김정일花 온실'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다. 그후 계속하여 정일봉(88.11.15), 향도봉(91.1), 만수무강수(91.2.9) 등의 상징물을 만들어 김정일 偶像化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의 위상이 부각되는 과정을 저작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중앙년감」에서 김정일의 업적에 관해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사실을 추적해보면 매우 흥미롭다. 즉 「조선중앙년감」 1987년판에서 부터 김정일저작을 분류하면서 김정일에 대해 기존에 사용해왔던 '지도자'나 '비서' 등의 呼稱을 사용하지 않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김일성이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언급한 이후에 취해진 조치로서 김일성에 대한 호칭인 '수령'의 정식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임에 틀림없다.<sup>60)</sup> 1989년판에서는 김정일저작에 대해 기존에 '문헌'이라는 표현을 '로작'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로작'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때부터 김정일 문헌에 대해서도 '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수령'이라는 호칭만 붙이면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로작'으로 되어 문헌분류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60) 「조선중앙년감」에서 김정일의 문헌을 독립적으로 분류·소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3년판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이라는 분류 제목을 사용하였다. 1982년판에는 김정일의 실무지도에 관한 내용을 처음 수록했으며, 1985년판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문헌'으로 분류제목에 바꾸었다.

金日成에 대해 수령 호칭을 붙인 과정도 이와 흡사하였다. 즉 수령 호칭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호칭에 대한 사용을 수년 동안 중단하였다. 「조선중앙년감」을 통해서 보면, 1958년판에서부터 사용해 오던 ‘수상’이라는 호칭을 1968년판에서 아무 수식어 없이 ‘문헌’으로 단순히 분류하였고, 1969년판에는 ‘김일성동지의 보고, 로작, 연설 및 축하문’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상이라는 호칭을 삭제하였다. 수상 호칭을 삭제한 것은 수령 호칭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이것이 1976년판에 드디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으로 분류되어 수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76년판에 작은글자체로 등장했던 분류제목은 1977년판에 조금 큰 글씨로 바뀌었고 1978년판부터는 현재와 같은 글자의 크기로 변하였다.

한걸음 나아가 「조선중앙년감」 1987년판에서는 문학예술 부문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저작을 敎示로 인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라는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1986년에 이르러 김정일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추측케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정일에 대해서 ‘지도자’라는 호칭사용을 삭제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文學藝術分野에서 김정일교시를 인용한다는 것은 문학예술분야에서 김정일은 이미 수령의 입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김정일저작은 후계체제 구축 및 수령승계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산물로서 3段階에 걸쳐 저작

출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정치적 의미는 다음의 <표 2-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1> 金正日著作 出版事業의 推進過程과 政治的 意味

구 분	제 1 단 계	제 2 단 계	제 3 단 계
시 기	1982~84	1985~87	1988~93
출판내용	政策政綱 完備	遡及出版	體系化
정치적 의미	政治基盤 擴大	後繼者 이미지 創出	首領承繼準備

제1단계(1982~84)에서 후계체제의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한 부문별 주요 정강정책을 출판하였고, 제2단계(1985~87)에서 소급출판을 추진하여 후계자의 이미지 창출을 시도하였다. 1986년 5월 후계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후부터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도가 가속화되어 본격적인 수령승계 준비를 위한 제3단계(1988~93) 출판사업을 추진하여 김정일정권의 정통성 수립과 저작의 체계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 第 Ⅲ 章 金正日著作의 時期別 內容分析

본 장에서는 김정일저작을 時期別로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政治·思想理論과 政策理論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 저작을 해석함으로써 김정일저작의 理論的 전개과정과 對住民 政治權力基盤 擴大過程에 대한 시기별 흐름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저작의 내용구성을 양적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질적분석방법으로 파악한 사실을 보완하였다.

시기구분은 김정일이 발표한 저작의 중요성과 著作의 性格變化에 근거하되 김정일의 권력상승에 따른 制度的 位相變化를 고려하여 일련의 기준년을 설정하여 나누었다. 김정일저작의 내용변화와 김정일의 위상변화는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정일의 정치제도적 위상이 크게 두드러진 시기를 보면,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1964년 4월, 당중앙위원회 비서 및 정치국 위원으로 진출하게되는 1974년 2월, 김정일이 권력의 제2인자로 등장한 1980년 10월,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올랐던 1990년 5월을 각각 기준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건으로는 1964년 3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 1974년 2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 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 그리고 東歐 社會主義圈이 붕괴되고 蘇聯邦이 해체되는 시기인 1991년 5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등

의 논문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시기별 구분은 크게 文藝理論 展開期 (1964~73), 黨指導理論 展開期 (1974~80), 國家指導理論 展開期 (1981~90), 主體 社會主義 體制 理論 展開期 (1991~93)의 4시기로 구분하였다.

### 1. 文藝理論 展開期 (1964~73)

이 시기는 1964년 9월 대학을 졸업한 金正日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黨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선전담당 비서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이므로 김일성의 절대화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이론화, 정당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김일성 唯一思想體系의 철저한 확립과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을 강력히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文藝分野의 저술활동을 활발히하여 이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력을 확대하였다.

#### 가. 唯一思想 登場

〈표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시기의 정치관련 문건은 전체의 10%인 11편으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이 중에는 黨관련 8편, 혁명전통, 정치사상교양, 외교관련 문건이 각각 1편씩 등으로 黨관련 문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외교관련 문건 “신

홍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65.5.9)”는 김정일이 김일성을 따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후 당의 대외사업일군들과 담화한 내용으로 여기서 김정일은 대외활동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록영화를 통해 대외선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1)</sup>

〈표 3-1〉 김정일저작의 시기별·주제별 분류

주제별	1960~64.3	1964.4~73	1974~80	1981~90	1991~93	계
정치	6(33%)	11(10%)	21(55%)	15(30%)	5(71%)	58(26%)
경제	5(28%)	7(6%)	7(18%)	12(42%)	.	31(14%)
사·문	7(39%)	83(76%)	10(26%)	21(42%)	2(29%)	123(55%)
군사	.	5(5%)	.	2(4%)	.	7(3%)
통일	.	3(3%)	.	.	.	3(1%)
계	18(8%)	109(49%)	38(17%)	50(23%)	7(3%)	222(99%)

주: 단행본은 제외하였음.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67.6.15)”는 1967년 5월 반당·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직후 발표된 저작으로 당내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적극 추진하려는 김정일의 의도를 밝힌 문헌이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곧 수령님의 사상체계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61) 김정일,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98.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만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당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sup>62)</sup>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김정일은 1967년부터 金日成의 革命歷史를 선전하기 위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발굴하는 사업을 전개하였고 「김일성동지 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연구실」을 만들어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였다.<sup>63)</sup> 1967년 6월에 세워진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1967년부터 출판하기 시작한 「김일성저작선집」 등이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밀접한 관련속에서 진행된 사업들였다. 또한 「조선중앙년감」 1968년판 서두에 김일성의 혁명역사 연표와 김형직, 강반석을 혁명투사로 소개하는 문헌을 수록하였다.<sup>64)</sup>

그외 경제, 군사, 통일관련 문건들은 3~4편씩으로 「선집」의 편집구성에서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련 4편의 문건은 농촌경리, 상품공급, 인민생활, 경제계획 지도에 관한 것들로 김정일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인민생활 향상문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거론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국가정책을 떠맡은 김정일이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건설이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

62) 김정일, 「김정일선집 1」, p. 238. 그러나 1982년 출판한 「조선전사」(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는 유일사상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라고 김정일은 명시하였다. 「조선전사 31」, p. 29.

6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pp. 34~38.

64) 이것은 1970년대에 「김정숙 따라배우기 운동」 등으로 이어진다.

한 데 따르는 주민불만의 해소책으로 제시한 일련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것들로서 김정일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군사관련문건은 군대내의 정치활동과 정치사상 강화에 관한 3편의 문건을 제외하면 중요한 군사관련 문건은 1968년 2월 2일 발표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1편뿐이다. 이 문건은 베트남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속에서 당시 북한군부내 強硬派가 득세함으로써 대남·대미 강경노선을 취한 결과 1968년 1월에 발생한 프예블로호 나포 사건 직후에 발표된 것이었다. 한편 통일관련 3편 중 통일문제를 직접 다룬 문건은 1972년 7월 14일 발표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1편뿐이다.

#### 나. 文藝理論 集大成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하고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과장과 부부장을 거쳐 1972년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대한 저작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에 발표된 전체 저작의 76%(83편)가 社會文化關聯 문건이다. 이중 사회분야는 15편이고 68편이 문예관련 문건이다.

먼저 社會分野 문건을 보면 총 15편 중 대중조직 4편, 교육 3편, 통신, 출판, 혁명학원, 동·인민반 활동, 청소년교양, 청년사업, 문화행사 분야 각각 1편씩으로 구성된다. 대중조직에 관

한 내용은 조선민주청년동맹, 소년단, 사로청, 군중사업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66.6.17)”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종합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라고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64.4.22)”에서처럼 상투적인 서술방식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69.3.24)”에서 볼 수 있듯이 문건의 전반부에서 영화상영 시간과 영화음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시작하다가 중반부에 이르러 갑자기 투쟁성과 혁명성을 강조함으로써 내용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문건도 발견된다.

文藝分野 문건은 68편이나 되어 이 시기 전체 저작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문학예술 작품은 체제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북한사회에서 문학과 예술은 철저하게 체제이념의 가치에 종속되며 사상혁명의 무기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정책의 기본목표도 “제국주의적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위업에 힘있게 복무하며 혁명적 문화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예작품중에는 映畵에 관한 내용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김정일선집」의 경우만을 분석하면, 총 40편의 문예관련 문건 중 22편이 映畵에 관한 내용으로 문예관련 문건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각 장르마다 1~3편정도의 구성분포를 보인다. 영화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사회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이다. 김정일은 주민들을 학습·교양시키는데 있어서 영화만큼 영향력이 큰 교육수단은 없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영화만큼 영향력이 큰 예술은 없습니다. 영화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들릴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며 기동적인 예술입니다. 영화는 생활을 생동한 화면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서는 영화관람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북한에서 성인 1명이 1년간 영화를 관람하는 회수는 150여회에 이른다.

〈표 3-2〉 「김정일선집」에 수록된 문예분야 문건의 분류

분야	일반	문학	음악	영화	방송	연극	오페라	문화재	계
문건수	5	3	2	22	3	1	2	2	40

영화관련 문건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조선인민군 2.8영화 촬영소의 기본임무에 대해 밝힌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64.9.15)”와 목사가족이 미국을 적

대시하며 투쟁하는 삶을 그린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66.12.27)” 등 다양하다.

영화분야 지도와 관련하여 1970년에 발표한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70.6.18)”는 북한의 영화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건이며,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서는 1973년에 영화를 대량으로 만들자는 결정<sup>65)</sup>을 한데 이어 87페이지에 걸친 長文의 저작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71.2.15)”를 내놓게 되었다. 이 저작들을 기초로 1973년 영화예술에 대한 강령이며 북한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대한 基本綱領으로 평가되는 「영화예술론」<sup>66)</sup>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문학작품과 영화 및 연극은 이 「영화예술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백두산」, 「불멸의 력사」 등과 같은 소설과 영화는 물론 왕재산 대기념비, 삼지연 대기념비 같은 조각작품도 모두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서 밝히는 지침을 근거로 창작된 것들로 꼽힌다. 북한은 「영화예술론」이 발표된지 20주

65) 김정일,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35.

66) 「영화예술론」은 그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생활과 문학’, ‘영화와 연출’, ‘성격과 배우’, ‘영상과 촬영’, ‘화면과 미술’, ‘장면과 음악’, ‘예술과 창작’, ‘창작과 지도’의 8부분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또한 영화제작의 실제론에 대해서는 주체이론과 창조체계에 근거하여 얼굴이 뚜렷하고 조선전통의 미가 풍기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년이 되는 1993년 4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성,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의 근본원리와 기본방도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의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령도방법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준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대강령이며 백과전서적인 교과서이다.<sup>67)</sup>

文藝文件은 “내가 늘 말하는 바와같이 수령님의 교시는 곧 법이며 따라서 그 집행에서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sup>68)</sup>라는 唯一體系確立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학예술인들이 南北交流를 원만히 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있을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문학예술인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69)</sup>

한편 김정일이 民族文化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점도 엿보인다.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64.9.16)”에서는 대성산의 역사 유물을 복구하고 안악궁터와 같은 평양시 주변의 유적지를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70.3.4)”에서 조상들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을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것

67) 「로동신문」 1993. 4. 11.

68) 김정일,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72.9.6),” 「김정일선집 2」, p. 438.

69) 김정일, 「김정일선집 2」, p. 453.

이라고 하여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문예분야의 저작은 김정일이 ‘문학예술의 천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김정일의 정치활동 시작이 黨 宣傳煽動部에서 영화사업을 지도하는 것이었고 김정일이 문예활동에 재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시기에 다량으로 발표된 문예관련 문건들은 김정일의 정치적 역량을 신장시켰음은 물론,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의 천재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선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 2. 黨指導理論 展開期 (1974~80)

1970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당지도부에 오극렬, 강성산, 황장엽, 김영남, 허담, 연형묵 등 김정일을 지지하는 혁명 2세대가 대거 등장함으로써 金正日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sup>70)</sup>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에 선출되었고 이듬해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당내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와같은 당내 지지기반 덕분에 김정일은 1980년 10

70) 高有換, “金正日 主體思想의 展開過程(上),” 「國際問題」 1993년 10월호, p. 68~69.

월의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당내 2인자로 浮上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문헌구성의 특징은 黨조직 및 운영에 관한 문건은 10%에서 55%로 대폭 증가하였고, 經濟관련 문건도 6%에서 18%로 늘어난 반면, 文藝관련 문건은 76%에서 26%로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權力基盤 구축이 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 시기에 당조직 개편과 당지도체계 문제와 관련된 많은 저작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sup>71)</sup>로서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문제, 즉 이데올로기의 정식화, 당조직의 개편과 지도이론의 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속도전, 3대 혁명이론 등 정책제시를 통하여 권력확대 및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였다.

#### 가. 金日成主義의 定式化

1974년 2월 19일에 김정일이 발표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 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이론, 지도방법을 金日成主義로 定式化한 문건으로 간주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

71) 김정일의 후계자 내정시기에 있어서 1973년 9월설과 1974년 2월설이 있는데 1974년 2월설이 더 유력하다. 그 증거로 북한이 1988년 제작·상영한 「위대한 전환의 해 1974」는 김정일에게 있어서 1974년이 중요한 해임을 강조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라고 주장하여 주체사상에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첨가한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sup>72)</sup> 이후 1976년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올바르게 인식할데 대하여(76.10.2)”를 발표하여 김일성주의가 ‘노동계급’이라는 혁명주체의 측면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있으나 역사적 상황이 달라짐으로 인해 혁명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맑스-레닌주의가 자본주의의 전복을 목표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이었다면, 김일성주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완성된 다음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론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sup>73)</sup>

김일성주의와 관련되는 주체사상과 혁명사상, 유일사상체계 등을 설명하는 관련문건들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74)</sup>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74.4.2)”를 통하여 주체철학의 독창성 제시 및 주체의 혁명사상에 대한 對住民 교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74.4.14)”에서는 잘 알려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선포하였다. 이 문건의 「10대원칙」부분은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소책

72) 김정일, 「김정일중요문헌집」(서울: 도서출판 별, 1992), p. 9, 24~25.

73) 「김정일중요문헌집」, p. 24.

74) 「로동신문」, 1984. 4. 2, 4. 14.

자를 만들어 전당에 배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이 시기에 김일성주의를 주장했다는 내용은 김정일에 대한 思想體系 定立의 방편으로 김정일저작 출판사업 과정에서 재해석 및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은 1974년에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을 대단히 강조했으며 이와같은 논의에 근거해 볼 때 이 시기에 김일성주의를 동시에 주장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김정일저작 이론가들이 1974년을 김정일에게 의미있는 시기로 구분하기 위해 1967년부터 주장해왔던 유일사상체계 이론을 발전시켜 김일성주의화 이론으로 새롭게 개념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 후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김정일이 黨 指導權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김정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지도체계 확립에 대한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78년에 절정을 이루어 김일성과 나란히 걸어 놓았던 김정일의 초상화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sup>75)</sup> 그후 1979년부터 김정일에 대한 권력구축 작업이再開되었고 권력승계 기반구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실은 발표문건을 통해서 확인된다. 1974~77년에 발표된 문건중 당관련 문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조직

75)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은 타율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김정일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취한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北韓研究所, 「北韓總攬」(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78.

및 운영 중심의 문건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이르러 총 5편의 문건 중 당관련 문건은 1편 뿐이었고, 그러다가 1979년에 黨建設 과정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2편의 문건 “당 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화,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79.3.19)”와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79.4.28)”가 발표된다. 김정일은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의 문건을 통하여 “당간부들은 수령의 교시와 당의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수령과 당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76)</sup> 이는 1979년부터 黨體系가 김정일 중심으로 다시 복귀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1980년 김정일이 정치활동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와 무관치 않다. 1975년 베트남전쟁의 종결로 무력충돌의 위기감은 일단 누그러졌으며 1978년 말부터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북한도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체제개혁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했다. 특히 중국은 1976년 毛澤東과 周恩來가 사망하고 江靑을 비롯한 4인방의 퇴보와 함께 華國鋒 過渡體制가 형성되자 4대근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를 당면경제정책으로 내세우게 되었으며 1978년 2월의 제5기 全人大 제1차회의에서 이를 10개년경제개발계획

76)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Kim Jong Il: On Enhancing the Party's Leading Role*.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92), p. 14

으로 채택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은 毛澤東 死後 지도력의 공백으로 야기된 중국의 혼란상황을 목격하고 후계자 문제가 김일성의 생존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개혁·개방을 골자로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자 북한도 중국식의 실용주의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자각하고 김정일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위해 김정일의 정치권력을 상승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이 1979~80년에 가속화된 데에는 1979년 10.26사건으로 인한 남한 사회상황의 혼란과 신군부정권의 등장으로 북한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김정일 후계승계 문제에 대한 결정이 10.26사건으로 인해 보다 쉽게 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나. 3大革命小組運動

이 시기에는 경제관련 문건이 18%를 차지할 만큼 늘어났다. 이는 김정일 權力基盤의 핵심으로 작용한 3대혁명소조를 중심으로 經濟建設分野에 관한 문건을 집중 발표했기 때문이다. 청년조직이 중심이 되어 1973년 2월에 발족된 3대혁명소조는 1974년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북한사회의 경제발전과 관료주의 타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북한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1982년에 10

월에는 김정일이 3대혁명을 主導하였다고 명시하고 3대혁명운동을 비롯한 여러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업적을 세우고자 하였다.<sup>77)</sup>

3대혁명과 관련된 經濟文件은 “전당이 총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74.10.9)”와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75.7.1),”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 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78.1.1),” “당안에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78.7.13)” 등의 문건이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 문건은 김정일 권력기반 구축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신세대인 청년학생들로 구성되어 김정일정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형성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운동은 천리마운동과 같은 기존의 단순 大衆動員政策으로부터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3. 國家指導理論 展開期 (1981~90)

1980년대는 김정일이 줄곧 북한의 중요한 대내외 정책을 관장하고 권력의 전면에 나서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김정일은 主體思想의 이론적 체계화 및 보완작업을 진행

77) 「로동신문」, 1982. 10. 21.

하는 한편 中·蘇의 변화에 대해서 輕工業政策과 통제속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제시하고 社會組織活動 強化에 대한 문건발표를 통해 지도자적 위상을 정립하였다. 이 시기의 발표문건의 구성을 보더라도 정치(30%), 경제(24%), 사회문화(42%), 군사(4%)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가. 主體思想의 體系化 및 理論的 補完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자신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내놓음으로써 자주성에 기초했던 주체사상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3차원으로 확대하였고, 主體史觀을 정립하였으며 이러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도방침을 제시하는 등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김정일은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한 創造性和 解釋權을 발휘함으로써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기초로 1985년 당창건 40주년과 관련하여 「주체사상총서」가 출판되었다. 전 10권으로 사회과학원에서 출판한 이 「주체사상총서」는 김정일이 언급한 주체사상의 내용을 기초로하여 확대·보완한 것이다. 1983년에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83.5.3)”를 발표하여 主體思想의 繼承性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 문건에 대해 노동신문은 문건발표 10주년 기념사설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조건과 환경이 과거와 다르며 주체사상만이 현재에 맞는 유일한 사회주의 지도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sup>78)</sup>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보완작업을 추진한 문건 “주체사상의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김정일이 1982년에 정립한 주체사상에 대한 기본구도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혁명주체가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有機體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주체사상의 교양내용을 김일성의 덕성교양만 해서는 안되며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영도방법을 깊이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9)</sup> 이 문건은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였는데, 이는 1989년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89.12.28)”에서 민족제일주의에 관한 내용을 확대·발전시켰고 이 문건은 다시 우리 식의 사회주의라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1991년 발표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건으로 연결된다.

이와같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보완을 시도함과 동시에 意識性을 더욱 강조하고 사상교양과 김일성·김정일 저작학습을 강화

78) 「로동신문」, 1993. 5. 3.

79) 주체사상학습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부분에서 현재 주체사상학습 교재로 김일성저작 원문을 사용하지 않고 저작의 해설서나 참고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원문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학습방법으로는 토론회를 통한 논쟁의 방법과 질문을 통한 문답식 방법의 사용을 권유하였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68~169.

해 나갔다.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88.10.12)”에서는 “사람의 일생에서 청년시절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든가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청년들의 사상무장을 高揚시켰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들고, 나아가 실업자가 없고 알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와 같은 소위 ‘자본주의적 병폐’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감성에 호소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정의로움과 정당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87.9.25)”에서 반미투쟁정신을 고무시키고,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88.5.15)”에서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여 값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영웅적인 희생정신을 요구하였다.

#### 나. 輕工業革命 및 社會組織活動

경제분야 문건은 각 시기별로 6%, 18%, 24%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1980년대에는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이는 1984년에 들어서 김정일이 주도한 일련의 經濟改革措置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84년 1월 남남협조를 통한 貿易擴大가 강조되었고, 2월 16일에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일종의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실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84.2.16)”는 이와같은 김정일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핵심적인 문건이며, 이로써 북한은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자료와 문헌을 김정일의 이 논문 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인민생활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김정일은 우선 간척지 개간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도로, 항만 등 기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취지하에 북한은 해방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國土管理部門 일군대회를 개최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간척지 개간, 이 분야의 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84.11.19)”를 발표하였고, 경공업혁명에 필수적인 技術開發 추진을 강조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85.8.3)” 및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90.6.2)”를 발표하였다. 그외에 保健醫療部門과 관련하여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85.4.21)”를 발표하였고 勞務管理에 대해서도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89.11.27)”를 발표하여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시기에 교육사업, 직업동맹, 농업근로자 동맹 등을 내용으로 한 社會分野 문건이 대폭 증가하였다. 1960년대의 76%에

서 1970년대의 26%로 대폭 감소했던 사회문화 관련문건이 1980년대에 42%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85.4.30)” 등 社會活動과 관련된 문건이 13편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같은 사실은 김정일정권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社會的 指導力이 擴大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86.5.19),”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87.4.11)” 등 체육분야에 관한 문건이 발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88서울올림픽」 동시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김정일이 추진한 실용주의적 대중운동은 1978~79년에 시작된 中國의 개혁·개방정책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78년 12월 공산당 제11기 3中全會를 계기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1983년 중국을 방문하여 개혁·개방의 현장을 견학하고 1984년에 「경공업혁명」과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합영법 제정·시행 등 북한식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84년 1월 「3자회담」을 미국에 제안하고 적극적인 對美접촉을 시도하는 등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시도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의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 4. 主體 社會主義 體制理論 展開期 (1991~93)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시작된 사회주의 改革·開放물

결이 1989년 말 동구 사회주의권에 파급된 현상을 목격하면서 김정일은 社會主義 體制의 方向性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한은 사상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위기를 이용하여 수령승계를 制度的으로 완비하려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 신설된 국방위원회에 진출하고 1991년 군최고사령관에 오른 이후 1993년 4월에는 軍최고결정권자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기에 이르렀다.

### 가. ‘우리식 사회주의’

김정일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원인 및 사상무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로 이론화하는 등 사회주의 體制에 대한 해석을 내린다.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91.5.5)”를 통하여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은 노동자, 농민, 인테리 집단으로 구성되지만 이를 포괄하는 外延은 나라와 民族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民族을 중심으로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3대혁명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며, 수령·당·대중이 하나가 되는 집단주의 원칙과 黨의 領導 및 繼承性을 보장하는 사회체제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인정하며 계획경제와 경제관리의 집체적 지도를 인정하며,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의한 대외활동을 추진하는 사회체제로 볼 수 있다.

1992년에 들어서자마자 발표한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92.1.3)”에서는 東歐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내리고 조선노동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문건은 이전의 문건과는 달리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內在的 問題點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 나. 社會主義 體制 繼承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領導의 繼承性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보장하는 시금석이라고 언급하고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 영도의 계승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sup>80)</sup> 이러한 분석은 1992년 10월 10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의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승계로 연결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문건에서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붕괴에 대한 내적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들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와해된 것은 지도력의 공백과 지도자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는다.

80)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370.

이 논문의 결론부분에서 서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매우 취약해진 사회주의 國際的 團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1992년 4월 20일 김일성 80회 생일에 즈음하여 세계 70개 당 48명의 당수와 당대표들이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평양선언」을 하였다. 이는 국제적 규모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이 「평양선언」을 통하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감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이용하였다.

1993년 3월 4일 발표한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할 수 없다”는 북한이 核査察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던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즉 북한이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발표되어 핵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김정일이 1990년대에 발표한 저작은 사회주의 체제문제를 포함한 비중있는 문헌들이다. 1990년 이후 김정일이 김일성을 대신해서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식화와 당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한 강령적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黨·政·軍의 수위의 위치에서 수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김정일저작의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사회문화분야가 전체의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치분야 26%, 경제분야 14%, 군사분야 3%, 통일분야 1% 순이다. 社會文化관련 문건이 많은 이유는 1960년대 김정일저작

이 문예분야에 치중되었고, 1980년대에 교육 및 근로단체활동 등 사회분야 문건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조직과 유일사상체계 및 문예분야의 문헌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권력기반과 권력장악이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과 일치한다.

한편, 김정일의 초기 저작활동은 文藝理論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당선전선동부 영화담당 지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정치활동 경력과 연결되는 저작을 대거 출판함으로써 저작의 사실성을 증대시킨 동시에 문예이론가로서의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저작은 외교분야의 문건과 대남통일 분야와 관련된 문건이 적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관련 문건 58편중 외교관련 문건은 1편이며 순수 통일관련 문건도 1편 뿐이다. 외교·통일분야의 문건이 적은 이유는 1974년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대외, 대남분야는 김일성이 장악해 왔고 김정일은 대내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한 役割分擔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김정일저작은 1960년대 제1시기에 김일성유일사상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70년대 제2시기에 김일성주의로 발전시키고, 1980년대 제3시기에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1990년대 제4시기에는 체제이론으로 확대되었다. 각 시기마다 김정일의 조직활동을 바탕으로 정책이론을 전개하여 문

예지도, 3대혁명소조운동지도, 경공업혁명지도, 사회활동지도와 관련된 문건발표를 통하여 각각 권력기반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의 정치 지도력은 文藝組織에서 출발하여 黨, 國家, 軍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걸맞는 이미지도 창출되어 ‘문학예술의 천재’, ‘사상이론의 거장’, ‘창조와 건설의 영재’, ‘자주시대의 세련된 영도자’ 등의 타이틀이 붙여지게 되었다.

## 第Ⅳ章 金正日著作에 대한 思想·理論的 評價： 金日成著作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본 장에서는 김정일저작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김정일의 사상과 이론을 김일성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성 死後 과연 김정일이 현 김일성의 노선을 계속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對北韓 政策樹立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김정일과 김일성의 理論的 類似性 혹은 差異點을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유의할 것이다.

### 1. 理念

#### 가. 主體思想

김일성이 이론화한 주체사상은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대외자주성과 자립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시정연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에서 김일성은 자주정치·외교, 자립경제, 자위국방의 지도원칙을 제시하고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였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65년 4월 1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의 문건에서 1회 사용한 것이다.<sup>81)</sup>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이 말하는 인간의 本質에 대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3차원으로 접근하여 김일성이 주장했던 자주성에 입각한 단일차원의 이론을 확대·발전시켰다. 김일성은 인간의 본질을 자주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입장으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강조하였다.<sup>81)</sup> 즉 자주성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주장하였지만 창조성과 의식성에 대해서 김일성은 인간의 본질로 규명하지 못하였고 창조적 ‘立場’과 ‘사상의식의 강화’라는 方法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 세가지 요인을 인간의 屬性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사상의식의 강화에 대해서 ‘의식성’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지도방침으로서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의식성, 즉 사상의식 강화를

81)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21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305; 國土統一院, 「金正日論文 ‘주체사상에 대하여’ 批判」(서울: 國土統一院, 1987), p. 25. 1965년 10월에는 「근로자」(1965년 제19호)에 실린 신진균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비록 ‘주체’와 ‘사상’ 사이를 붙여 쓰지는 않았지만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라는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1967년 5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에서도 ‘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1회 사용되었다.

82) 리승복 편, 「변증법적 유물론 1」(평양: 고등교육도서 출판사, 1978), p. 33~39. 1970년대 후반에 주장되었던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인간의 속성을 自主性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思想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취해야할 근본입장을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볼 때 김일성이 얘기하는 주체사상은 체계화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통한 인민대중의 자각성을 혁명과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김일성보다 사상의식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일은 북한사회의 혁명성 유지를 위해 對 住民 사상교양과 학습활동을 김일성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본다.

주체사상에 대한 김정일의 이론가적 자질을 보여주는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12줄에 걸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즉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는 ‘의식성’에 대해서 김정일이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의식성’의 개념은 1974년에 처음 주장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처음 공개된 것이 1984년이고 여기에 쓰인 ‘의식성’에 관한 문장이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소개된 내용과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논문이 전면적으로 改作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여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革命的 首領觀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김일성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개인이 사회조직의 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생활원리라고 하였다. 즉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으로 설명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유기적 관계를 ‘집단주의 원칙’으로 설명한 김일성의 이론에 일종의 感情移入을 시도하였다. 즉 김정일은 집단주의 원리에 근거한 수령·당·대중 사이의 관계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라는 감정을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關係의 規範을 만들었다. 首領을 ‘아버이’로, 黨을 ‘어머니’로 각각 지칭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은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일제식민지와 미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한 金日成에 대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黨은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으로, “자식의 생명에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아낀다고 하는 등 ‘사랑’과 ‘믿음’이라는 애정적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러한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설명한다. 즉 동지애와 의리는 수령에 대해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김정일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는 개인들 사이에서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하지만 그 어느 개별적인 성원도 사회정치

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인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됩니다.<sup>83)</sup>

라고 설명하였다.

셋째로, 김정일은 주체의 혁명관에 대해 이미 거론한 바 있는 首領觀 이외에 組織觀, 群衆觀, 道德觀을 첨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정일이 제시한 군중관과 조직관은 김일성의 이론과 유사한 내용이다. 김정일은 組織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직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령과 조직적으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수령이 안겨주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없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수령관을 조직성원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김정일이 제시한 道德觀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개인들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명시한 것으로 김정일은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집단에 대한 희

83)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63.

생정신을 특히 강조한다. “만일 사람이 그저 자기자신의 안락만을 위하여 살다가 한생을 마친다면 남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그런 사람의 한생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 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득한다. 특히 이 집단은 공간적 개념임과 동시에 후손들을 위한 世代的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후세대를 위해 훌륭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동의를 이끌어 내는 점도 특징적이다.

나아가 개인과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김정일의 독특한 사상이다. 개인과 집단사이의 관계는 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인들간의 관계는 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는 서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집단안에서 平等한 자격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sup>84)</sup>라고 강조한다. 심지어는 “남녀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지적 관계”<sup>85)</sup>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남녀간의 사랑에

84) 김정일, 위의 책, p. 213.

85) 김정일, 위의 책, p. 217.

대해서까지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 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民族主義

김정일은 김일성이 도입한 民族개념을 ‘우리민족제일주의’로 발전시켰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기존의 전세계적(global) 차원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서 신생독립국 내지 제3세계 외교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民族問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후 1966년 10월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및 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등에서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주의 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함으로써 中·蘇분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연대가 와해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였다.

이 당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식민통치를 경험한 제3세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주의적 연대를 창출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제3세계 국가단결의 연결고리로서 민족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전세계적 입장에서 제3세계의 범위로 縮小되었으며 민족문제를 이들 국가에 새로운 투쟁 이념으로 제공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1970년대 제3세계를 혁명의 중심부로 이념화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이 주장한 民族은 식민통치

를 경험한 제3세계의 민족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다.

한편 김정일이 제시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한 민족의 개념이 韓民族으로 더욱 축소된 것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입니다.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 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김정일이 제시한 민족개념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89.12.28)”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즉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정의하는 한편, 우리민족에 대해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존중히 여기고 동정심이 많으며 레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닌 민족”이라고 자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성을 지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장하는 민족문제나 민족제일주의는 서구의 民族主義보다는 애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둘 사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6)</sup> 김정일은 우리민족의 투쟁적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日本과 美國과 싸워서 이긴 사실이 바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처럼 역량대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강대한 원수와 싸워 이긴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람들은 강대한 일제와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을 영웅적 인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조선민족이 제일이라고 떳떳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sup>87)</sup>

김정일이 정립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그 중요성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首領論을 正當化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정일이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말한 바와같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시달리게 된 이유도 수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날 우리 인민은 탁

86)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309~310.

87)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53.



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으로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민족의 자주권마저 빼앗기고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일이 제시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김정일이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목적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식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 나가자는 것이 바로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입니다. 민족제일주의의 영예를 떨쳐 나가는 길은 곧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길입니다.<sup>88)</sup>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와 연관지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사실은 더욱 명백해 진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북한이 세계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주민이 느낄 수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유도한다.

88) 김정일, 위의 책, p. 263.

셋째, 조선민족제일주의는 統一問題를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다.<sup>89)</sup> 김정일은 ‘민족주의’ 대신에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애국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민족주의 개념을 만들었고 이를 근간으로 남북한 사이에 민족적인 단결로까지 이끌어 내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통일문제와 연결시키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물결로 인해 사회주의권 내에서 이념적 단결이 불가능해졌고, 민족해방을 기치로한 제3세계의 단결력도 약화되어 혁명력량 강화의 대상을 남한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세계는 民族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민족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김정일 체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통일분야인데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거론함으로써 남북대화와 통일논의에서 김정일의 입지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 다. 프롤레타리아 獨裁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過渡期에 대해서 金日成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며 사

89) 「평양방송」, 1993. 11. 19.

회주의까지 보는 것이 옳다”고 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는 시기까지만을 過渡期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과도기가 끝난 후에도 공산주의 완성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맑스理論이 설정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한계선을 다음과 같이 철회하였다.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 원수들의 반항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락될 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sup>90)</sup>

金正日은 이 문제에 대해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결의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이라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주신 다음부터 선행리론을 대하는 사회과학자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라고 하여 이 시기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였다.<sup>91)</sup>

1983년 5월 김정일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9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72.

91)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 218.

높이 들고 나아가자”라는 문건에서 “우리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면서 국가주권문제를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人民政權을 창조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역사적 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라고 하면서 인민정권은 노동계급의 혁명운동 발전법칙에 기초하여 탄생된 프로레타리아독재 정권의 새로운 형태라고 주장하였다.<sup>92)</sup> 이는 김일성의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차대회 시정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 나타난 견해를 따르고 있다. 즉 인민정권은 전체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 정권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일은 1991년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문건에서 “권력기능을 수행하는 정권기관과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으로부터 노동계급의 당을 대신할 수 없을 뿐아니라 그 령도를 받아야 합니다. 勞動階級の 黨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 령량으로 될 수 없습니다”<sup>93)</sup>라고 함으로써 인민정권이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언급함으로써 인민정권과 당의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였다. 이같은 입장은 1992년 4월 憲法改正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sup>94)</sup>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더

92)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01.

93) 김정일, 위의 책, p. 368.

94) 북한 新사회주의 헌법 제11조.

욱 명백해졌다.

## 2. 社會體制 移行問題

### 가. 社會主義 體制 崩壞에 대한 認識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회로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만큼 전진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다”라고 사회주의 승리의 必然性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문제에 대해 1987년에 이미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경쟁을 새것과 낡은 것의 투쟁으로 표현하면서 “새것의 승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력사의 이 법칙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sup>95)</sup>라고 말하였는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여곡절’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95)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87.

김정일은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해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붕괴를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던 일부 나라들에서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전진도상에는 난관과 시련이 없을 수 없으며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한 것은 역사 발전법칙의 기본흐름에서 보면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소련·동구 사회주의 붕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규정짓고 있다.<sup>96)</sup> 수십년간 투쟁을 통하여 쌓아온 사회주의의 당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현상은 인류역사의 전반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우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단순히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은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이처럼 체제의 ‘내적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다.

96)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92.1.3).”

김정일이 인식하는 사회주의 내부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사회주의 사회에 팽배해 있는 官僚主義 문제이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당의 부정부패와 타락으로 주민들에 대한 혁명적 사상사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집권당과 사회주의 제도가 한두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련이어 무너지게 된 것은 당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당의 관료주의적 태도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sup>97)</sup> 관료주의의 문제점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식,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난하는데 대한 해명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즉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붕괴된 국가에서 국민들이 반대한 것은 부패한 관료주의이지 사회주의 체제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sup>98)</sup>

둘째, 탁월한 指導者의 不在로 인한 문제이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의 지도자 부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정도는 그 중심에 탁월한 지도자를 내세울 때에만 훌륭히 보장될 수 있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정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수령의 정도를 받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것이다.

97)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92.10.10).”

98)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회방은 허용될 수 없다(93.3.4).”

김정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경험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적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예견성있게 풀어 나간다면 얼마든지 사회주의 위업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능력있는 우수한 지도자를 내세우고 사회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여 社會主義 崩壞 위기를 맞아 이를 오히려 권력승계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된다.

셋째, 知識人과 靑年組織의 주도적 역할 때문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집단으로 이들 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지식인은 직업성격상 자유화에 쉽게 젖어들 수 있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혁 지향적이며, 특히 동구 사회주의 체제 민주화를 주도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이 지식인들을 철저한 조직생활로 묶어 노동계급 의식을 잃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으로 청소년 집단의 역할을 주시하였다.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을 보면 적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 앞장에 섰다.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나선것은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지 못한 당에 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못할 때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 잘 보여주고 있다.<sup>99)</sup>

99)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은 청년집단이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1년 「청년절」을 제정하고 「사로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1927년 8월 27일 김일성이 「공청」(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 청년절을 기념하여 김정일은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91. 8.26)”는 문건을 발표하였다. 1993년 2월 18일에는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사로청 제8차대회 대표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청년들의 관심을 통일문제로 끌어 들여 1988년부터는 청년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청년집단을 조국통일의 기수로 내세우며 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내적 원인에 대해 체제의 經濟的 非效率性 문제는 자신의 문건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은 개혁조치와 개방정책이 아니라 사상강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체제고수 의식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됩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데서 이밖에 그 어떤 다른 묘술이 있을

수 없습니다.<sup>100)</sup>

이렇듯 중앙집권적인 규율에 의하여 당의 유일적 지도를 따르고 당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思想意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를 사상에서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로 규정하고 북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多元主義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나. 帝國主義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체제이행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확신은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 김일성이 생각하는 제국주의는 주로 美國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계를 통칭하는 것으로, 그 설명도 제국주의 본질에 대한 보편적인 記述에 그쳤다. 즉 제국주의는 끊임없이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제국주의는 곧 멸망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해외군사 <원조비>의 대부분을 쏟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술한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해외침략무력의 3분의 2를 투입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우고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100)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428.

대한 침략을 손쉽게 달성하려고 어리석게 망상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가지고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축으로 아세아 <반공> 군사동맹을 꾸며내려고 발광하고 있다.<sup>101)</sup>

김일성은 레닌이 식민지·민족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인 민족자결에 대한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맑스의 사상을 심화·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을 취하였다.<sup>102)</sup>

김일성은 그 중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특히 주시하였다. “세계제패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공공연히 <힘의정책>에 매여달리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침략적 군사빨력인 나토를 강화하고 구라파에 새로운 핵무기를 배치하며 인도양을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에 침략적 군사기지를 늘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sup>103)</sup>라는 전쟁적 관점은 레닌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성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이러한 ‘침략적 본질’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 즉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다”<sup>104)</sup>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0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02~103.

102) 김일성, 위의 책, p. 96.

10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19~120.

10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51.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어 그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피압박 인민대중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 사회주의 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에 매여달리면서 보다 은폐되고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략탈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105)

그러나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김일성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일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제국주의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기본 성격분석에서는 김일성과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 변화를 역사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정일은 미국은 2차대전 과정에서 국내산업이 파괴되지 않았고 연합국들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은 유일한 나라로 戰後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한다. 김정일은 “미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 세계의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습니다”라고 슬회하였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성격이 1960년대 들어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인식한다.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105) 김정일, 위의 책, p. 107, 112.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었고 이는 제국주의간에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레닌이 예견한 바와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상품시장을 쟁탈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파괴적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간에 단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 동안에 170여차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자본주의 령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도리어 군사빨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령강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결탁관계가 모순을 드러내기 보다는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자본주의의 파국적 결말이라는 레닌의 명제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즉 자본주의 발전은 해외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하며 이 시장개척은 한계에 부딪히며 따라서 생산을 제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실업자 증대와 통화팽창을 유발하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정일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앞으로 제국주의 령강들 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 령강들이 저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결탁하고 있지만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그들 사이에 리해관계가 대립되고 모순이 격화되리

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지면 승냥이들끼리 서로 물고 뜯기 마련입니다.<sup>106)</sup>

나아가 김정일은 제국주의가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소위 ‘내부모순’을 첨가한다. 즉 자본가들이 상품판로가 점점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지적하는 제국주의의 폐해란 대개 ‘약탈’, ‘이중 삼중의 착취’, ‘민족적 인종적 억압’, ‘계급적모순 첨예화’ 등이었으나,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非道德性에 대해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한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07)</sup>

현대 제국주의의 이러한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지적한 점이 김정일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이론의 독특한 측면이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속성을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로 요약, 규정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분석축점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김정일의 분석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중 물질적 풍요로움을 부인하지 않고

106) 김정일, 위의 책, p. 177.

107) 김정일, 위의 책, pp. 177~180.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의 이론에 따르면 제국주의 멸망의 결정적 이유는 ‘경제법칙의 불가피성’ 때문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부패’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의 이러한 도덕적 타락성 때문에 제국주의는 스스로는 멸망하지 않으나 ‘사상적으로 각성한’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으로 멸망하리라는 논리는 펴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가 림종에 가까와 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 수 있습니다.<sup>108)</sup>

### 3. 社會經濟發展

#### 가. 經濟政策

김정일은 북한주민의 물질생활 수준의 향상이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평가하였다. 즉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라고 선언하고 “투쟁하는 우리당에 있어서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의 기반위에 「경공업혁명」

108) 김정일, 위의 책, pp. 180~181.

을 가미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즉 의류, 식품가공, 신발, 가정용품, 학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생산을 증대하여 경공업 부문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제품포장과 상품공급, 편의시설 확충 등 서비스 부문의 발전 또한 지적하였다.

특히 주택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을 강조하였다. 광복거리 건설과 통일거리 건설로 대표되는 북한의 주택건설 사업을 통하여 김정일은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經濟規模와 地域分散 政策에 대해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김일성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여 郡과 里의 중간단위였던 面을 없애고 郡과 里의 연계적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郡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북한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62년 8월 8일 김일성은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라는 연설문을 통해 이미 1958년 6월 전원회의가 결정한 郡 단위에 1개이상의 지방공업을 건설하여 생필품 공급을 잘 하도록 결정한 지시사항을 잘 실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일도 郡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김일성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김정일은 “군을 단위로하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을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은 군을 단위로하는



지방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기본을 이룬다”는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논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김정일은 郡경제의 軍事的 중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견해를 약간 발전시켰다. 김일성은 郡경제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전시조건에서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생산력을 적당하게 배치하는 것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sup>109)</sup> 이점에 대해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였다.

군을 거점으로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상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쟁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유사시에 군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군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군들에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이는 郡을 중심으로한 지방경제의 軍事的 필요성에 대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 것이다.

1984년 「경공업혁명」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전쟁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즉 김정일은 “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sup>110)</sup>

10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54.

110)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

전쟁준비를 완성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생활을 높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와 피로써 생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바쳐 수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 나. 改革·開放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개혁·개방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가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개혁·개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일부 과학기술과 경제 부문의 우세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헐뜯고 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과 경제건설 분야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언급한데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이 즈음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북한의 경제가 위축됨으로서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상대적인 경제발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들어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합영과 합작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겠습니다.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창조

적 지혜와 재능을 집대성한 귀중한 창조물이며 인류공동의 재부입니다. 세계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울수 없습니다.<sup>111)</sup>

김정일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연구활동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과학서적 교류와 인력교류 등의 방법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며, 전자공업 등의 첨단기술분야는 합영과 합작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12)</sup>

그러나 1992년 1월에는 3대혁명중 기술혁명에 대해서도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마치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라고 하면서 기존에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단시일내에 성취하자고 했던 입장을 일축시키고 본래의 3대혁명 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도입을 포함한 개방정책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sup>113)</sup>

111) 김정일,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419.

112) 김정일, 위의 책, pp. 419~420.

113) 김정일, 위의 책, p. 452.

#### 다. 經濟成長과 住民生活 水準에 대한 認識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84.2.16)”를 발표한 1984년까지만 해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자고 하였고,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자신감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역력히 나타난다. 즉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고 당 제7차대회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고 당 제7차대회를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고 하였다.<sup>114)</sup> 제7차 당대회에 대해서 1983년 7월 김일성은 1986년에 개최할 계획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sup>115)</sup> 김정일이 이 문건을 발표한 시기는 1984년이기 때문에 인민생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려면 적어도 1990년을 겨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으로 보아 경제성장과 인민생활 향상이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을 앞둔 작금의 상황에서 인민생활 향상이 통일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 김정일의 생각이다. 남북한의 대결을 정치군사적 대결인 동시에 경제대결로 규정하고 “경제적 면에

114)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pp. 6~7.

115)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99.

서도 남조선을 압도하고 완전히 눌러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물질생활면에서 남북한 사이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자신만만해 하였다.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이 고마운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겠다는 정치사상적 각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만만한 태도는 1992년에 와서는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이라고 김정일의 평가가 바뀌게 되었다. 이는 북한 경제발전의 한계성을 노정시킨 것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한 김정일체제의 정당성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졌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정일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옷이나 집같은 것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먹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김일성의 교시를 원용하여 의식주 문제를 ‘식의주’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먹는 문제에 관한 한 최우선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진하고 간석지 개간과 새땅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곡물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공동의 관심사이다.

김정일은 1992년 1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에 유족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태도에서 한걸음 물러섰다.<sup>116)</sup> 이러한 태도변화는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 시정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북한의 경제적 침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에 대해 점차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의식주 문제가 걱정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실업자가 없고 알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와 같은 소위 ‘자본주의적 병폐’가 없다는 사실들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지적한다. 종속이론이 주장한 내용중에 ‘분배의 평등’문제만이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유효한 조건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도 된다.

116)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92.1.3).”

#### 4. 自衛國防 및 統一問題

##### 가. 自衛國防

김정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67.7.3)”에서 “세상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것과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그에 못지않게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혁명적인 로선입니다”라고 하였다.<sup>117)</sup>

김정일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67.7.3)”에서 “지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핵공갈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을 위협하는 한편 부르조아사상 문화를 침투시켜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부르조아 문학예술은 온갖 패륜패덕과 색정, 살륙과 강탈, 비애와 절망을 고위하면서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음으로써 사람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도덕적 타락분자로 굴러떨어지게 하며 반혁명에로 부추기는 엄중한 해독작용을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1960년대 후반의 상황이 대내외적

117) 김정일, 「김정일선집 1」, p. 262.

으로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사상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같은 내용은 1990년대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주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은 자위국방 원칙을 관철하는데서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헌신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8)</sup>

#### 나. 統一問題

김일성이 1990년대를 통일의 시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김정일을 통일의 기수로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평양방송」은 “분단의 장벽을 허물지 않고는 역사와 민족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다”고 강조하고 통일문제를 김정일의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19)</sup> 김일성은 김정일의 이 과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 및 汎民聯 북측 본부 성원들에게 한 연설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통하여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1993년 4월 7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는 등 민족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1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53.

119) 「평양방송」 1993. 11. 19.



김정일은 애국심에 기초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여 남한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민족단결을 통해 이를 통일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 10월에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신라는 당나라 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는 하였으나 우리 나라에 하나의 통일적인 주권국가를 세우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 신라의 통일은 ‘영토확장을 위한 호전성의 발로’라고 비난하고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를 주장하였다.<sup>120)</sup> 그후 북한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는 고려라는 주장을 펴왔다.<sup>121)</sup> 이것은 1993년 10월 同논문발표 33주년 기념토론회를 통해 김정일의 이 논문에서 이미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는 “고구려의 통일정책을 계승한 고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발표되었다.<sup>122)</sup> 북한은 최근 단군능 발굴과 같은 민족문화 사업을 전개한 것도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남북대화과 통일논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저작에서 발견되는 통일관련 내용을 보면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제도적 연합체를 이루자는 「고려연방제」에 대한 내용이 그의 주장의 전부이다.

120)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상리론의 영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277~284.

121) Jang Chong Uk, “Emergence of Koryo, the First United State of Korea,” *Korea Today* No.3(438) 1993, pp. 41~42.

122) 「조선중앙방송」, 1993. 10. 20.

1990년대에 통일을 이룩하자는 구호와 민족대단결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자는 문구, 그리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달성하자는 내용 등은 김일성저작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김정일을 통일의 기수로 만들어 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김정일의 독자적인 업적 내지 사상으로 주장할 만한 내용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5. 文藝理論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대해서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즉 문학예술 작품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 내지는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전체 인민을 위한 운동의 한 부분이며 인민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예술가의 임무는 예술가의 모든 천부적 소질과 재능, 그리고 그의 예술이 공산주의를 향한 위대한 투쟁운동을 위해, 공산당정책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전인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예술은 노동계급과 분리될 수 없고 문학과 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당의 지도는 당과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예술의 내용이 형식보다 우월하다는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였으나 민족문화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였고 항일혁명 문학예술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sup>123)</sup>

김정일은 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변형시켜 이른바 ‘주체적 사실주의’를 문학예술의 기본 창작방법으로 강조한다. ‘주체적 사실주의’는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투쟁시절에 제시하였으며,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새롭게 정식화하고 문예의 본질적 특성과 문예사적 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고 강조한다. 주체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제한성, 즉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과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의 면모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했던 점 등을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체적 사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기본 척도로 해서 사람을 전형화하는 반면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계급성을 전형화의 기본 척도로 삼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적 사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등을 전형화의 기본척도로 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계급출신의 근로자들은 물론 계급출신이나 성분이 어떻든 누구나 능히 애국자, 혁명가로 전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북한의 문학예술작품에서 ‘부유한 가정출신의 애국자’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에 기초한다.<sup>124)</sup>

123) 李宇榮, “김정일 문예관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1993년), pp. 156~157.

124) 「조선문학」, 1993년 8월.

주체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결합시킨 것으로 그 특징은 문예작품 창작활동에서 당과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문화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수령에 의해 이룩된 혁명적 문화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문화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이 주장하는 ‘주체적 사실주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김일성이 강조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저작에 나타난 김정일의 사상과 견해는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토대로 概念化 및 方法論的 洗練化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과 비교해 볼 때 김정일은 思想性과 道德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성 강조의 측면에서는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의식성’을 개념화하고 사상교육과 주민학습을 강조하였으며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는 특히 청소년들의 사상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사회통합의 연결고리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동지애와 의리에 호소하고, 제국주의의 비윤리적 측면을 비판하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도 도덕성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 第 V 章 結 論

김정일저작 출판사업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를 통하여 권력의 정상에 오른 김정일은 1982년부터 사회 각 분야의 정책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저작 출판을 통하여 對住民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고,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끌어내기 위해 과거저작에 대한 소급출판사업도 아울러 추진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후계승계가 공식화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령승계를 위한 저작출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와같은 출판과정을 통하여 김정일의 과거활동에 대한 평가와 지도자적 이미지는 재구성되었다. 즉 김정일저작 출판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신비화, 후계자 문제의 조기해결(1974년에 해결), 김정일의 사상가적 자질과 지도자적 능력의 입증 등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저작은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던 대중적 구호를 제목으로 하여 저술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대중적 호소력을 높이고 김정일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김정일저작은 아직까지 김일성의 경우처럼 단일문건이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특히 외교·통일문제에 대해서 김정일저작이 취급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이러한 취약성

을 보완하기 위해 저작 이외의 다른 문헌을 통하여 김정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론적·실천적 노력 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1988년부터 문건의 뒷부분에 통일문제를 첨가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고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김정일저작에서 발견되는 사상과 이론을 김일성저작과 비교하여 평가해 볼 때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사상의식과 윤리성 등을 강조하는 측면이 두드러질 뿐이다. 이는 김정일이 정치생활 초기부터 文藝活動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지도하였고 그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經濟분야와 文藝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시는 대부분이 김정일저작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로동신문」은 경제분야의 敎書로 김정일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주로 인용하고 있으며, 최근 통일거리건설 및 경공업혁명 추진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문예활동에 대해서도 영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문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조선중앙년감」 등에서 김정일저작을 교시로 인용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당건설에 관한 김정일저작의 인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김정일이 이미 1982년에 체계화하였고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통해 보완·발전시킨 이후 저작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당건설 분야도 1982년 10월 당관련 문건을 발표한 후 김정일저작의 인용이 늘어났으며, 소급출

판한 문건의 인용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주체사상과 당조직체계에 관한 김정일저작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착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분으로, 이 분야에 대한 김정일저작의 인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金正日著作은 金日成著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김정일의 위상 정립과 권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매체 등에서 김정일저작의 인용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 때문에 引用問題를 둘러싼 김일성저작과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감안한다면 김일성저작을 김정일저작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두 저작을 각 분야별로 고르게 인용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關係設定의 갈등은 김일성 死後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저작과 김일성저작 사이의 관계설정은 이 두 저작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김일성저작은 김정일 등장 이전 시기로 제한하고, 김정일 등장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김정일저작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의 聖經에 비유한다면 북한의 聖典도 이제 舊約과 新約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제는 그 관계를 정립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1960년 이전 시기의 김정일저작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한 한 金日成著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김정일의 首領承繼 준비과정에서 김일성의 항

일무장투쟁활동을 더욱 강조해온 사실을 상기하면, 해방이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역사해석과 체제의 정통성 도출문제 등은 김일성저작에 준거할 것임이 분명하며, 해방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기 전인 1958년 또는 1960년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김일성저작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선집」이 김정일의 대학졸업 이후인 1964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아직 전문이 밝혀지지 않는 않지만 김정일의 대학시절의 문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60년 이후 시기에 대한 김정일저작의 인용은 증가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1974년에 이미 후계자로 추대되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후계체제의 지도적 위상강화와 이미지 각인을 위해 1974년 이후에 발표된 김정일저작의 인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1960년이나 1974년의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김일성저작과 김정일저작을 구분하고, 저작 인용문제를 一元化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 강인덕 편. 「중국주요논문선집: 개혁과 개방」.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8.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選」.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 國土統一院. 「金正日論文 ‘주체사상에 대하여’ 批判」. 서울: 國土統一院, 1987.
- . 「金正日名義 論文·談話」. 서울: 國土統一院, 1987.
- . 「北韓의 外交實態와 特徵」. 서울: 國土統一院, 1986.
- 김일성.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 「김일성저작집 1~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92.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1989.
- 金正日.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93.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김정일중요문헌집」. 서울: 도서출판 별, 1992.
- . 「映畫藝術論」. 平壤: 外國文出版社, 1989.

- \_\_\_\_\_.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88.
-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리상걸·박승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리승복 편. 「변증법적 유물론 1」. 평양: 고등교육도서 출판사, 1978.
- 朴奎植. 「김정일평전」. 서울: 陽文閣, 1992.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2.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사상리론의 영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卓珍·金剛一·朴弘濟. 「김정일지도자」 제1부·제2부. 동경: 東邦社, 1984.
- Kim, Jong Il. *On Enhancing the Party's Leading Role*.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92.

- Lenin, V. I. *Collected Works*. Vol. 8~9. Moscow: Progress Publishers. 김탁 옮김. 「레닌저작집 3-1, 1904.10~1905.4: 1905년 혁명」. 서울: 전진출판사, 1989.
- Lenin, V. I. *Collected Works*. Vol. 7~8. Moscow: Progress Publishers. 김탁 옮김. 「레닌저작집 3-2, 1905.5~1905.7: 1905년 혁명」. 서울: 전진출판사, 1990.
-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Über Kunst und Literatur*. Edited by Manfred Kliem. Berlin: Dietz Verlag, 1967. 조만영·정재경 옮김. 「맑스·엔겔스 문학예술론」. 서울: 들베개, 1990.
- Franklin, Bruce (ed.). *The Essential Stalin and Problems of Leninism*. London & Peking: Croom Helm, 1973. 서중건 옮김. 「스탈린 선집」 제1권(1905~1931), 제2권(1932~1952). 서울: 전진출판사, 1990.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Zis, Avner. *Foundations of Marxist Aesthetics*. Moscow: Progress Publisher, 1981. 연희원·김영자 옮김. 「마르크스주의 미학강좌」. 서울: 녹진, 1989.

## 2. 論文

강석승.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불멸

- 의 업적,” 「근로자」(평양: 근로자사) 1987년 제2호.
-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태백 편집부. 「주체사상연구」. 서울: 태백, 1989. pp. 9~82.
- 高有換. “金正日 主體思想의 展開過程(上), 「國際問題」(1993.10). pp. 63~77.
- . “金正日 主體思想의 展開過程(下),” 「國際問題」(1993.11). pp. 112~113.
- 김남식. “김정일이 수령이 되는 날,” 「신동아」 1992년 5월호.
- .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1991년 봄호), pp. 9~39.
- . “北韓과 中共의 體制展開 比較研究,” 「國際政治論叢」 제24집 2호(1984), pp. 211~234.
- 리성덕. “주체문학의 창조와 건설을 위한 불멸의 대강,” 「천리마」 제11호 (1992).
- 염기순. “우리 당은 일심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혁명적 당,” 「근로자」 1987년 제2호.
- 이종석. “김정일 연구 1,” 「역사비평」 제14호(1991년 가을호).
- 이호인. “북한영화의 이론과 제작체계,” 「사회와 사상」 1989년 3월호, pp. 298~311.
- 田耕旭. “北韓의 民俗藝術,” 「北韓研究」 1993년 여름호, pp. 7~28.

- 전현준. “김정일과 북한의 신권정치,” 「신동아」 1991년 7월호.
- . “김정일, 과연 카리스마적 권위 안전할까,” 「북한」 1992년 2월호.
- . “김정일의 權力承繼基盤과 政策方向에 대한 연구,” 「統一研究論叢」創刊號 (1992.6), p. 1~24.
- 한홍구. “북한관계 문헌 해제,” 김남식 外.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학사, 1989. pp. 285~326.
- Jang Chong Uk. “Emergence of Koryo, the First United State of Korea,” *Korea Today*, No.3(438), 1993.

### 3. 其 他

- 「근로자」 1980~1991.
- 「內外通信」綜合版 제20호~48호.
- 「로동신문」 1980~1993.
- 「北韓總攬」. 서울: 北韓研究所, 1983.
- 「조선문학」 1980~1992.
- 「조선중앙년감 1970~199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1991.
- 「조선중앙방송」.
- 「조선예술」 1990~93.
- 「평양방송」.

# 附 錄

빈 면

## 1. 金正日著作 一覽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1960. 9.	“대학 민청단체들 앞에 나서는 중심과 업에 대하여”	「영」 p. 88
10.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	「영」 p. 277
61. 3.25	“만폐지 책읽기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 자”	「영」 p. 148
4.18	“실습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자”	「영」 p. 165
62. 1.15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87. 1.15
2.22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 튼히 세울데 대하여”	87. 2.22
5. 4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대한 문건	87. 5. 4
8. 5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	「영」 p. 229
9.19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84. 9.19
63. 1. 8	“당생활 총화를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 에서 진행하자”	「영」 p. 68
1.14	“대안의 사업체계는 독창적인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	「영」 p. 237
6.12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견결히 옹 호할데 대한 문건	84. 6.15
7.19	“학생당세포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 하여”	「영」
7.29	“대학생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를 튼 튼히 세울데 대하여”	84. 7.29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8.29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할 필요성과 이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문건	84. 8.29
10.18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영」 p. 124
64. 3.18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84. 3.18
3.30	“당과 수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되자”	84. 3.30
64.4~72.12	「김정일선집」 제 1, 2권 참조 (부록 2)	
64.4~73.1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 1, 2권 참조 (부록 3)	
73. 4.11	「영화예술론」	83. 3.28
74. 2.19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88. 2.19 (「완 3」)
2.28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완 3」
4. 2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84. 4. 2
4. 9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완 3」
4.14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84. 4.14 (「완 3」)
5. 7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84. 5.13 (「완 3」)
6.10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완 3」
8. 2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84. 7.31 (「완 3」)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10. 1	“예술영화촬영소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 「완 3」 여”	
10. 9	“전당이 총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89. 10.13
11. 6	“과학교육영화 촬영소의 기본임무에 대 「완 3」 하여”	
12. 6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혁 「근」89(12) 명적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p. 74	
?	“가극예술에 대하여”	「근」87(7)
75. 1.28	당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3대혁명 85. 1.28 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문건	
4.30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완 3」	
5. 2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 90. 5. 2 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	
5. 6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완 3」 위하여”	
6.13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완 3」 문제에 대하여”	
7. 1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 83. 7. 5 운 양양을 일으키자”	
10. 5	“음악무용창작에서 당의 방침을 옹계 「완 3」 구현하자”	
10.22	“혁명가극 창조에서 사상예술성을 높이 「완 3」 기 위하여”	
76. 1. 1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완 3」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	
2. 6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 「년 87」 p. 287 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 양을 일으키자”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5. 1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완 3」 여”	
6.10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문건	
10. 2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올바르게 인식할데 대하여”	86. 10. 2
10.22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건	84. 10.22
77.11. 8	“당정책 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84.11. 8 (87.11.8)
78. 1. 1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 당, 전민을 불러 일으켜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	85. 2.18
3. 1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년 86」 p. 245
7.13	“당안에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83. 7.13 (88.7.13)
8.22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85. 12.14
12.25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을 양양할데 대한 문건	83. 12.25
79. 3.19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89. 3.19
4.28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86. 4.28
80. 1. 8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	85. 1. 7 (90.1.8)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1. 8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 자	85. 1. 8
4.25	몇몇 여성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	
9.27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90. 9.27
12. 3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 하여”	90.12. 3
81. 3. 8	“당 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 여”	84. 3. 8 (85.7.23)
3.31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 하여”	「년 87」 p.287
6.12	“당 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 지 과업”	84. 6.12
7.13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 화할데 대하여”	84. 7.13
82. 1. 7	당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87. 1. 7
3.31	“주체사상에 대하여”	82. 4. 1
10.17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ㄷ>의 전 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82.10.17 (전문게재)
11.21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년 87」 p.287
12.15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년 83」
83. 1.14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 적 전환을 일으키자”	85. 1.14 (「완 5」)
1.15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완 5」
5. 3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83. 5. 4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84. 2.16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84. 5. 3
3.10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85. 3.12 (「완 5」;89.3.10)
4.25	“인민군대는 자기 수령과 당, 자기 제도와 조국을 목숨으로 시수하여야 한다”	86. 4.25
5. 3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84. 6.14
7.15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완 5」
7.22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84. 7.24
8. 3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완 5」
8. 4	“교예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완 5」
11.19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84.11.20
12.11	“축하문 : 개성방직공장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완 5」
85. 3. 1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시대적 미감에 맞는 훌륭한 음악무용과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완 5」
4.13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자”	「완 5」
4.21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85. 4.22
4.30	“근로자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85. 5. 4
5. 2	“민주주의 캄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완 5」
8. 3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87.9.21 (87.11.21)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12.14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 하여” 「년 86」 p.245	
86. 1. 3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87. 1. 3 (「완 5」)
3.27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86. 3.28
5.17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86. 9.23
5.19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년 87」	
7.15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86(8)	87. 7.15
11. 4	“축하문 : 금성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완 5」	
11.23	“3대혁명 불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86.11.26
11.25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완 5」	
87. 4.11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년 88」	
9.25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전문게재)	88. 9.25
10.10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88.10. 7
88. 4.20	“연극예술에 대하여” 「년 89」	
5.15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88. 9.22
10.12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완 5」	89. 5. 5 (전문게재)

문건발표일	문건제목/내용	문건발표 확인일
89.10.26	“꾸바신문〈그란마〉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89.12. 4 (전문게재)
11.27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89.12.14
12.28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
90. 6. 2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90. 6. 3
9.13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90.12. 7
10. 3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90.10. 4 (전문게재)
?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보낸 회답서한”	「년 91」
?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동지들에게 보낸 회답서한”	「년 91」
91. 5. 5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	91. 5. 5
8.26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91. 8.26
92. 1. 3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92. 2. 4
10.10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92.11. 2
?	“당의 지도적 역할을 고양시킬데 대하여”	
93. 2.18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	「평」 93.2.18
3. 4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	「중」 93.3.4

주 : 1. 「영」은 「사상리론의 영재」(1986), 「근」은 「근로자」, 「평」은

「평양방송」, 「중」은 「조선중앙방송」, 「년」은 「조선중앙년감」, 「완」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1987~88), 「친」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1992), 그외의 낱자는 「로동신문」을 각각 지칭함.

2. ( )안의 숫자는 문건의 제목이 정확히 밝혀진 시기를 표시함.



## 2. 「김정일선집」 目次

### 제 1 권 (1964~69)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민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4.4.22)

조선중앙통신사의 기본업무(조선중앙통신사 일군들과 한 담화, 64.6.  
12)

황해남도 농촌경리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황해남도 당 및 농  
촌경리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4.8.21)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조선인민군  
2.8영화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64.9.15)

력사 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64.9.16)

비행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조선인민군 제855군부  
대 일군들과 한 담화, 64.10.18)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들앞에서 한 연설, 64.12.10)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한 담화, 65.1.8)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평양시 일군들과 한 담화, 65.2.15)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5.4.27)

신홍세력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5.5.9)

- 제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6.1.26)
-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66.2.7)
-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66.2.26)
-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6.6.6)
-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들과 한 담화, 66.6.17)
- 당대표사회 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66.10.28)
-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66.12.27)
-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 전형화를 깊이있게 실현할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67.2.10)
- 상품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자(상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7.4.7)
-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작곡가들 앞에서 한 연설, 67.6.7)
-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67.6.13)
-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67.6.15)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67.6.20)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과 일군들과 한 담화, 67.6.30)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67.7.3)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당 사상 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67.7.3)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67.7.30)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67.8.16)

청년들은 농촌데계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7.10.8)

혁명가 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전사가 되어야 한다(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 혁명가유자녀들과 한 담화, 67.10.12)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68.2.

2)

정치부중대장의 임무(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정치부 중대장과 한 담화 (68.3.13)

-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예술영화 〈형제들〉의 창작가들과 한 담화, 68.4.6)
-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량강도 책임일군 및 항일 혁명투사들과 한 담화, 68.7.21)
-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졸업생들과 한 담화, 68.10.8)
- 음악창작 방향에 대하여(창작가들과 한 담화, 68.10.25)
-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8.11.1)
-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69.1.19)
- 일군들은 사업방법과 작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9.2.25)
-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과 일군들과 한 담화, 69.3.24)
-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69.4.20)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9.4.29)
- 인테리정책 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 잡을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69.5.29)
-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69.8.12)
-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9.9.27)

## 제 2 권 (1970~72)

작가들은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영화문학작가들 앞에서 한 연설, 70.1.17)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70.2.14)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럴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70.2.19)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70.3.4)

사회안전일군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사회안전성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70.3.29)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작가, 연출가들과 한 담화, 70.6.18)

영화예술부문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70.10.16)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70.12.3)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문학작가들과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71.2.12)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71.2.15)

우리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영화부문 일군

들과 한 담화, 71.4.28)

당일군은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자 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71.5.18)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71.6.14)

영화예술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71.7.8)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식의 새로운 가극(혁명가극 <피바다> 창조성원들 앞에서 한 연설, 71.7.17)

영화예술부문의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당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71.8.3)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71.10.1)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71.10.11)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연설, 71.10.16)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창조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71.10.28)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71.10.29)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71.12.28)

4.25체육선수단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4.25체육선수단 성원들과

한 담화, 72.6.26)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72.7.11)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72.7.14)

텔레비죤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텔레비죤방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72.8.22)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72.9.6)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 72.10.17)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가극을 창작할데 대하여(국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72.11.7)

### 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 1, 2권에 수록된 文件 (「김정일선집」에 중복수록된 文件은 생략)

#### 제 1 권 (1964~71)

방송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잘하자(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5.4.25)

영화창작에서 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릴데 대하여(영화부문 일군  
들과 한 담화, 66.2.4)

비단섬은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이다(비단섬을 돌아보면서 일군들  
과 한 담화, 66.8.26)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66.9.23)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문학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67.5.30)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명곡을 많이 창작하자(영화음악작곡가들과 한  
담화, 67.6.7)

북청회의 결정 관철에서 앞장에 서자(북청군 문화협동농장 일군들과 한  
담화, 67.7.18)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여 훌륭한 당일군이 되라(평양공산대학 학생과  
한 담화, 67.10.25)

방송은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한 담  
화, 68.3.24)

혁명전적지를 잘꾸리자(보천보 혁명전적지에서 일군들과 한 담화, 68.7.  
18)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과 한 담화, 68.10.11)



- 혁명에 필요한 명곡을 창작하자(영화음악작곡가들과 한 담화, 69.2.11)
- 영화창작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할데 대하여(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초  
급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69.2.19)
- 영화예술인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영  
화예술인들의 무대공연 총화모임에서 한 연설, 69.5.13~16)
- 당세포의 기본임무는 당원들을 혁명과업 수행에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백두산창작단 당세포 일군들과 한 담화, 69.6.5)
- 영화예술인들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기수(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일군협의  
회에서 한 연설, 69.6.9~14)
- 예술영화 〈피바다〉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예술영화 〈피바  
다〉 창조성원들과 한 담화, 69.9.11)
- 영화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영화예술인들의 사상투  
쟁회의에서 한 연설, 69.12.9)
-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을 세울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 및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70.1.9)
- 영화예술부문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위대  
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70.1.12~15)
-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 창작단 성원들에게 보낸 편지(70.2.26)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종업원결기 모임에서 한 연설(70.5.7)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70.6.6)
-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조선기록영화촬영소 종업원들  
앞에서 한 연설, 70.10.9)
- 청산리를 잘 도와줄데 대하여(강서군 청산협동농장 모내기전투에 동원  
된 예술인들과 한 담화, 71.5.12)
-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창작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71.11.18)

## 제2권 (1972~73)

영화문학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영화문학작가  
협의회에서 한 연설, 72.8.11)

혁명가극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혁명가극건설  
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73.  
3.1)

문화예술부 정치국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문화예술부 책임일군들  
과 한 담화, 73.3.28)

영화예술론(73.4.11)

전당에 새로운 당 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73.8.21)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  
환을 이룩하자(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73.11.5)

당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 협의회에서 한 연설, 73.11.8)

사회주의적 민족교예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교예단 료해검열사  
업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73.12.8)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の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